금수강산

7

주체113(2024)
루계 제419호 월간

 ISSN 1727—9062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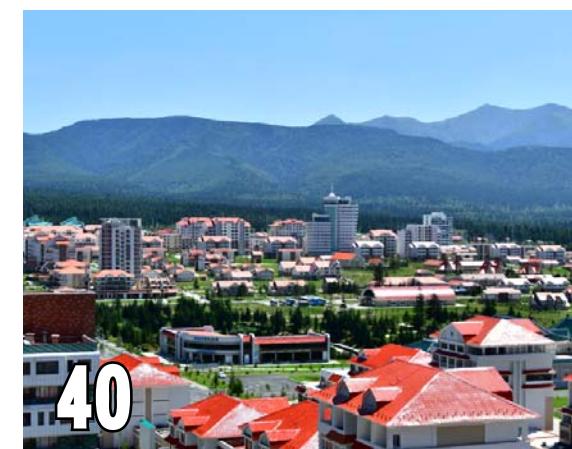
주체113(2024)년 7월호

제419호
주체78(1989)년 8월 창간

표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는 인민들

인민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상을 누리에 떨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간직되여있다.

본사기자 김영호

편집: 김광수, 최은혁, 로윤경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흔히 흐르는 세월은 사람들에게 망각을 실어온다고들 한다.

그러나 오로지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애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뜨거운 격정을 불러일으키며 인민의 심장마다에 그리움을 더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은 가장 숭고한 인간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인간이시였으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아침에 비내려도 인민을 찾으시고 깊은 밤 눈내려도 온 나라를 돌보신 그이이시였다.

이른새벽 어느한 농가를 찾으시여 집주인이 깨여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주신 위대한 수령님, 자식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보살펴주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가마뚜껑도 손수 열어보시며 살림살이 형편도 헤아려보시고 로동자들의 식당과 합숙을 찾으시여서는 국맛도 보아주시며 이불의 두터이도 가늠해보신 그이이시였다.

인민을 위해 기울이신 그이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수 없다.

하늘아래 첫 동네로부터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조국땅 방방곡곡에는 그이의 발자취가 새겨져있고 그 자욱마다에서 인민을 위한 사랑의 이야기는 수없이 생겨났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아이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책가방도 열어보시고 밥곽도 펼쳐보시던 그이의 그 은정, 장난세찬 아이들을 허물없이 무릎에 앉혀주시고 공부는 잘하는가, 앞으로 무엇이 되려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며 육친의 정을 부어주신 이야기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다심한 어머니와도 같이 인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살림살이도 의논하여주시며 마을이 잘살 방도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뜨거운 인정미에 마음이 끌려 인민은 그이께 마음속생각도 서슴없이 아뢰였다.

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 정녕 그것은 인민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신 친어버이의 사랑이였으며 인민의 천만가지 마음속생각도 갈피갈피 다 헤아리고 풀어주신 육친의 사랑이였다.

인민이 있는 곳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였고 그이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었다.

어느해인가 일요일 아침 한 일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은 강서와 룡강, 온천지구의 몇개 단위를 돌아보자고 하시였다.

하지만 그 일군은 선뜻 대답을 올릴수 없었다.

며칠째 밤늦도록 사업하신 그이께서 잠시나마 피로를 푸시였으면 하는 생각이 앞섰던것이였다.

그리하여 일군은 그이께 오늘은 일요일인데 오전한겻만이라도 쉬시고 오후에 떠나셨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동무도 이제는 나와 함께 오래동안 일해오는데 아직 내 마음을 잘 모른다고 하시며 내가 언제 일요일이라고 하여 편히 쉬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여본적이 있는가, 여느때는 바빠 현지에 자주 나가지 못해도 일요일에 가까운 곳에라도 나가 현실도 료해하고 인민들도 만나보고싶다, 나에게 이이상 더 만족한 일요일은 없다, 이것이 나의 휴식이다라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이날 아침 평양을 떠나신 그이께서는 일요일 온 하루를 청산리와 옥도리 그리고 온천군의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시고 밤이 퍽 깊어서야 돌아오시였다.

인민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좋다고, 인민들을 만나보아야 마음도 즐거워지고 밥맛도 더 난다고 하시며 그이께서 인민들을 찾아 쉬임없이 이어가신 사랑의 그 길우에 사회주의락원이 일떠서고 인민의 행복이 꽃펴났다.

인민의 행복은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였다. 사랑하는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높이 내세워주시고 인민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는것이 그이의 리상이였다.

언제인가는 수산부문에서 례년에 보기 드문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인민들의 풍성한 식탁을 눈앞에 그려보시며 너무 기쁘시여 《바다의 노래》를 흥겹게 부르신 그이이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지금까지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인민들속에서 살아왔다고 하시면서 인민과 함께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 의지를 피력하시며 인민을 위한 헌신의 자욱을 이어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을 뜨겁게 관통하고있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민위천이다.

사상도 명실공히 인민을 위한 사상, 정치도 인민을 위한 정치, 사랑도 인민을 위한 사랑으로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여 조국인민을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인민은 영원히 못잊는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은 정치가, 한 나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

국가수반이시기 전에 온 나라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인민에게 하늘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신 그이의 성스럽고도 빛나는 업적과 위대한 풍모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라는 부름에 집약되여있다.

력사에는 정치를 잘하여 후세에 이름을 남긴 정치가들도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국가수반들도 인민들로부터 자애로운 어버이로 불리운적은 없었다.

라오스신문 《매닝라오》는 인민에 대한 **김일성**주석의 사랑은 조선땅 그 어디에나 깃들어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조선의 그 어디를 가나 주석의 사적이 있으며 그이의 은정을 몸가까이 받아안은 사람들, 주석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들을 쉽게 찾아볼수 있다.

주석께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을 위해 걸으신 길은 그 얼마인지 헤아릴수 없다. 그 과정에는 주석의 탄생일도 있었고 명절날, 휴식일도 있었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을 민족의 어버이, 영원한 수령으로 길이 모셔가고있다.》

주체83(1994)년 7월 8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 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인민과 해외동포들,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일성상계관인 박사 김만영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기자: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하는 서사시들을 많이 창작한 선생님의 심정이 남다르리라 봅니다.

김만영: 예.

잃어서는 안될분, 보내서는 안될분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잃고 비분에 몸부림치던 그 잊지 못할 30년전의 7월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너무도 믿어지지 않아 온 나라 인민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목놓아울며 눈물의 바다를 펼쳤던 그때를 잊을수 없습니다.

어린이건 어른이건 모두의 마음속에 위대한 수령님은 자애롭고 인자하신 어버이의 모습으로 간직되여있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조선민족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혁명의 걸출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이시였습니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어린이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여주시고 로인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허물없는 친구가 되여주시며 그들과 사소한 간격도 없이 소탈하고 검박하게 생활하시고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그 어떤 만족도 모르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였습니다.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끊임없이 이어가신 그이의 현지지도는 오늘도 인민사랑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하많은 이야기들에서 시적충동을 받고 여러편의 서사시, 장시들을 창작하였습니다.

기자: 선생님의 많은 작품들이 인상에 남는데 특히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민의 심장을 울려준 철학적인 시라고 봅니다.

김만영: 그 시는 내가 위대한 수령님을 못잊어하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을 담아 주체84(1995)년 6월에 창작한것입니다.

나는 그이께서 생전에 만나셨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우리 수령님의 모습은 어버이의 모습이였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시기전에 인간중의 인간이신 우리 수령님의 생애를 더듬을수록 가슴은 뜨거움에 젖어들었습니다.

인민이 세계의 주인된 새세상을 세우고 인민이 가야 할 진로를 밝혀준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에게는 영원한 세계를 주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니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습니다.

마치 떠나가실것을 미리 다 아신것처럼 수령으로서, 어버이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그 모든 일을 미결건이 없이 하나하나 다 매듭을 지으시고 순직하신 우리 수령님.

하기에 인민들의 마음속에 그이께서 탄생하신 4월은 있어도 가신 7월은 없는것입니다.

나는 시에 우리 인민의 이러한 감정을 그대로 담았으며 위대한 수령님은 쌓으신 업적과 높으신 덕망으로 하여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절절히 구가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시를 보아주시고 만점짜리 시라는 과분한 평가를 주시였습니다.

《로동신문》에 이 시가 게재되였고 온 나라 인민들이 눈물속에, 그리움속에 읊었습니다.

동료들은 나를 보고 어떻게 되여 그런 명시를 창작했는가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 나라 인민의 마음을 그대로 담으려고 애썼을뿐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다음해에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주체87(1998)년에 서사시 《번영하라 **김일성**조국이여》를 창작발표하였습니다.

기자: 시는 심장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강요하거나 지울수 없습니다.

선생님뿐 아니라 수많은 시인들과 작가들, 예술인들이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구가하는 창작품들을 내놓았습니다.

정말이지 지난 30년은 조국인민들의 심장속에 우리 수령님의 위인상이 더욱 깊이 새겨진 나날이였다고 봅니다.

김만영: 그렇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세기는 바뀌였지만 이 땅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고있습니다.

그이의 사상과 업적은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로 빛을 뿌리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은 어제나 오늘에나 변함없이 조국인민들을 위훈에로 고무해주고있습니다.

조국에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이에 대한 흠모심과 신뢰심은 사상과 정견, 피부와 언어,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세계적판도에서도 세차게 분출되고있습니다.

올해 4월에만도 세계 여러나라 예술인들이 4월의 명절을 맞으며 자기들이 준비한 예술공연작품들을 보내여 우리 인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며 세계각지에서 그이의 업적을 칭송하는 각종 토론회, 전시회들도 끊임없이 진행되고있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그 10년이 열번, 아니 백번 흘러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영원할것입니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합니다.

* * *

명곡에 실려오는 추억

바다의 노래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황정혁

조국의 년대들마다에는 시대를 대표하고 그 시대 인간들의 사상감정을 반영한 명곡들이 수없이 태여나 사람들속에서 불리워졌다.

그중에는 노래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와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바다의 노래》 등도 있다.

오늘도 조국인민들은 이 노래들을 부를 때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감회깊이 추억한다.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노래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는 1960년대에 창작되였다.

명곡을 불러보느라면 당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가 열리였던 북청군 룡전리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이 확대회의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과수원을 대대적으로 늘이는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위대한 혁명과업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과수원조성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그후 그이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온 나라 인민을 북청확대회의 과업관철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조국에서의 과수업의 새 력사는 그대로 인민들에게 철따라 맛좋은 과일을 마음껏 먹이기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헌신의 력사이다.

그이께서 찬비내리는 봄날에도, 무더운 여름날에도 쉬임없이 걸으신 룡전리의 산비탈길이며 창성군의 험한 오솔길 등이 있어 이 땅우에는 과일고장, 과일동네들이 태여날수 있었고 조국은 과수의 나라로 전변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제도를 제손으로 일떠세운 조국인민은 어딜 가나 기쁨과 웃음넘치는 사회주의생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이 노래를 즐겨 불렀다.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조국의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신 곳이며 명곡인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를 낳은 뜻깊은 고장이다.

노래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를 부르면 주체49(1960)년 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름동안이나 평안남도 강서군(당시)에 계시면서 새로운 대중지도사상, 대중지도방법을 창조하기 위해 걸으신 청산리의 찬눈길이 어려온다.

당시 그이께서는 이곳의 실정을 환히 꿰뚫어보기 위해 농가들을 찾으시여 농민들을 만나주시였으며 많은 회의를 지도해주시였다.

그 과정에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현실에 맞게 구현하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그리고 청산리를 그 어떤 자연재해도 모르며 공업화되고 현대화된 농업생산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지도를 주시고 은정도 돌려주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이름없던 청산리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본보기로 꾸려지게 되였으며 그것은 온 나라에 일반화되게 되였다.

명곡은 당시 청산리만이 아니라 이 땅우에 만풍년의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의 분출이였다.

《바다의 노래》

《바다의 노래》, 이 명곡과 더불어 조국인민들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한해가 저물어가고있던 주체70(1981)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산부문의 한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였다.

일군으로부터 명태잡이실태와 바다에 명태떼가 쭉 깔렸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만사를 다 잊으신듯 호탕하게 웃으시다가 《바다의 노래》의 한소절을 넘기시였다.

《떠나갈 땐 빈배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배전에 넘친다》

커가는 인민의 행복을 담아 그이께서 부르시는 명곡을 듣는 일군의 가슴은 뜨거워만졌다.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수산부문의 주요회의들을 여러 차례 소집하시여 수산업발전과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고 온 나라의 수산기지들을 찾고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못잊을 그날에 《바다의 노래》를 흥에 겨워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은 인민의 행복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시며 오로지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모습이였다.

* * *

반 향

희세의 정치원로, 위인중의 위인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 숭고한 덕망을 지니시고 20세기를 자주의 세기로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영원불멸할 업적과 한없이 고매한 위인적풍모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칭송의 목소리는 년대와 년대를 넘어 메아리치고있다.

세계정치계의 공인된 령도자

주체38(1949)년 3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전 쏘련을 공식친선방문하시였을 때 쓰딸린은 성대히 차린 연회의 축배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장구한 기간 일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싸움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한 항일유격대를 조직령도하신 친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쏘련을 피로써, 무장으로써 옹호해주신 참다운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자이시며 공산주의자의 귀감이시다. …쏘련이 오늘과 같은 평화적인 환경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할수 있은것은 친애하는 **김일성**동지와 같으신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이 있었기때문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는 수령님을 세계가 공인하는 걸출한 령도자로, 쏘련혁명을 수호하는데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영웅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나는 뜻깊은 이 자리를 빌어 나와 그리고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모두 열렬한 박수로써 **김일성**동지께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자는것을 제의합니다.》로 축배사를 마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54(1965)년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였을 때 수카르노대통령은 그이를 칭송하여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일성**수상의 권위에 비하면 조선의 땅덩어리가 너무 작은것이 유감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수상각하는 세계를 움직이시니 세계를 가지고계시는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체64(1975)년 4월 주은래총리는 림종을 앞둔 자기를 찾아 몸소 병원에까지 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그동안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김일성**동지의 원칙적인 립장과 옳바른 가르치심이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였습니다. 세계혁명문제는 앞으로도 세계정치의 공인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지도를 받아야만 옳게 해결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일성**동지께서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세계혁명을 이끌어주실것을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강철의 령장,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나라에 와있던 한 외국기자는 후날 가렬처절하였던 그 나날을 회상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1951년말 막상 평양주재 특파원으로 가게 되였을 때 나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다. 쏘도전쟁이 대군과 대군사이의 전쟁, 련합국과 동맹국사이의 전쟁이였다면 조선전쟁은 세계제패를 꿈꾸는 대군과 엊그제 태여난 청소한 일개국사이의 보통상식을 벗어난 대결이였다. 당시 아시아이건 유럽이건 정의를 사랑하고 선의의 감정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조선을 쳐다보며 조선의 운명을 걱정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누구나 약하다고 생각한 청소한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고 미국과 서방의 련합세력의 책략가들이 짜낸 전략을 단독으로 격파하고 국제사회의 상상을 뒤집어놓으시였다. 희세의 영걸, 걸출한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 작은 나라 인민도 가장 강대해질수 있으며 강적과 싸워 언제나 승리할수 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마카오주둔 뽀르뚜갈군 참모장으로 있었던 뽀르뚜갈 전 대통령 고메스는 《당시 미국이 만든 작전계획은 서방나라들의 참모장들, 군사전문가들인 수십명의 장군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토의한 끝에 만든것이다. 그런데 **김일성**장군께서 그것을 단독으로 격파하시였다. 나는 이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김일성**장군이시야말로 이 세상에 한분밖에 없는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위대한 령장이시라는것을 알게 되였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고결한 인품, 뛰여난 덕망

《나는 수많은 나라 국가수반들을 만나보았다. 하지만 내가 만나뵙자마자 그처럼 인차 의사가 통하고 친근감을 느낀분은 오직 **김일성**주석뿐이시다.》

이것은 주체64(1975)년 여름 자존심이 세기로 소문났던 쁠럭불가담운동의 발기자의 한 사람인 이전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였던 찌또가 자기 나라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떠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바래워드리고나서 한 말이다.

그는 제기되는 문제마다 깊은 뜻과 심오한 내용을 담아 말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뛰여난 언변과 해박한 지식에서 비범한 예지와 정치적원숙성을 느꼈으며 뜨거우면서도 섬세하고 대범하신 성품에서 변치 않는 고결한 도덕의리와 사심없는 우정을 절감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가까이하고 정을 나누고싶은 충동을 억제할수 없었다. 하기에 그는 불편한 몸이지만 위대한 수령님을 동행해드리고 매일 그이의 숙소를 찾아가 체류기일을 연장해주실데 대한 청까지 올리였다.

피델 까스뜨로가 주체75(1986)년 3월 꾸바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가지라도 더 알고싶어하고 배우고싶어하는 그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한생의 귀중한 밑천으로 될 많은 가르치심을 주시자 그는 너무도 감동되여 《**김일성**동지는 한가지 문제를 말씀하셔도 아주 풍부한 내용을 담아 알기 쉽게 말씀하십니다. …

김일성동지는 참으로 풍부한 지식과 비상한 기억력을 지니신 위인이십니다.

김일성동지는 저의 스승이며 탁월한 수령이십니다.》라고 말씀올리였다.

주체83(1994)년 여름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돌아간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는 《**김일성**주석은 어떤분이신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분은 미국의 건국과 운명을 대표했던 죠지 워싱톤,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3대대통령을 다 합친것보다 더 위대한분이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계가 공인하는 위대한 정치원로, 만민이 우러르는 위인중의 위인이시였다.

본사기자

옥돌공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주체64(1975)년 10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기후현본부 상임위원회에서 드린 선물

애국의 업적과 더불어 빛나는 지원의 사상

1894년 7월 10일.

이날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그때로부터 어언 1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일찌기 지원의 사상을 지니시고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바쳐오신 선생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오늘도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물결친다. 지금도 대학교정에 새겨진 《지원》의 글발을 바라보느라면 험난한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가시던 김형직선생님의 모습이 숭엄히 어려온다.

지난 1910년대는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바로 그러한 때 선생님께서는 조선의 독립은 외세의존이나 청원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조선인민이 무기를 잡고 민족자력으로 성취해야 한다는 새로운 투쟁방략을 내놓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력사의 그 나날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는가고, 내 몸이 찢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제와 싸워이겨야 한다시며 내가 싸우다가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 말씀은 곧 그이께서 품고계시던 애국의 사상과 신념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봉화리를 거점으로 국내의 여러곳에서 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밀고나가시는것과 함께 광범한 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에게 지원의 사상을 심어주시며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군중계몽과 동지규합을 위해 낮에는 명신학교에서 글을 가르치시였고 밤에는 야학에 나가 군중계몽사업을 하시였으며 동지들을 찾아 여러 지방들에도 자주 나가시여 혁명조직결성준비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에 기초하시여 주체6(1917)년 3월 23일 평양의 학당골에서 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였다.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울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로서 당시 가장 규모가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이였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중추적역할을 하였다.

조선국민회의 결성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시려는 김형직선생님의 견결한 반제자주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간고한 투쟁의 결실이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 후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국내와 해외의 여러 지역에 조직을 확대하시고 광범한 반일력량을 조선국민회의 두리에 묶어세우시면서 단결된 힘으로 무장투쟁을 벌리기 위하여 험난한 길을 헤쳐오시였다.

진정 지원의 높은 뜻을 안으시고 선생님께서 걸으신 험난한 그 길은 조국해방의 려명을 불러 한몸을 바치신 위대한 애국자의 한생으로 빛나는 력사의 길이였다.

지원의 사상으로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실 원대한 뜻을 지니신 선생님이시기에 림종의 시각에 자제분들에게 뼈가 부서지고 몸이 쪼개지는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엄숙한 당부를 유언으로 남기시였던것이다.

지원의 사상과 3대각오, 동지획득에 관한 사상과 두자루의 권총, 천만금에도 비길 수 없는 참으로 고귀한 재부를 유산으로 물려주신것이야말로 김형직선생님의 위대하고 불멸할 업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김형직선생님께서 그토록 념원하시였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 조국번영의 념원은 력사의 새벽길과 더불어 더욱 찬란히 꽃펴날것이다.

김형직사범대학 학장 박사
부교수 김정철

일화

사랑의 힘으로 이긴 전쟁

《전선의 동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소》

주체39(1950)년 7월 어느날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해 로고를 다 바쳐가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전사들을 찾아 최전선으로 향하시였다.

전선을 향해 달리던 승용차는 어느한 강에 이르러 더 전진하지 못하였다. 폭격으로 다리가 끊어졌던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는 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이 근방에 철다리가 있을테니 알아보라고 이르시였다. 일군들로부터 철다리가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그곳으로 건너가자고 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적기가 무시로 날아들고 지척을 분간할수 없는 캄캄한 밤에 승용차로 철길다리를 건는다는것은 위험을 동반한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고 서있는 그들의 마음속을 헤아리시고 전선의 동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있다고, 전선에서는 이 시각에도 전사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주저하고있겠는가고 하시며 어서 건너가자고 하시였다.

드디여 승용차는 침목을 넘고넘으며 한치 또 한치 전진하여 전선으로 향하였다.

전화의 불길속에서 태여난 화선휴양소

가렬한 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0(1951)년 5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인민군대의 한 지휘성원을 부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 전선부대 군인들속에서 야맹증환자가 발생하고있는데 대해 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책에 잠겨있는 지휘성원에게 지휘관은 대원들속에서 단 한명의 야맹증환자가 발생하여도 그것을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전선부대 군인들에게 물고기와 남새를 비롯한 부식물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주고 특히 간유를 공급해줄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그이께서는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전쟁이 장기성을 띠고있는 조건에서 인민군군인들을 위한 화선휴양소를 내와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이어 어려운 싸움을 한바탕 하고난 전투원들을 화선휴양소에 보내여 며칠씩 휴식시키면서 영양가높은 음식을 해주면 그들의 원기를 한층 돋구어줄수 있다고, 화선휴양소를 내오면 전선에서 싸우는 전투원들이 용기백배하여 싸움을 더 잘할것이라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세계전쟁력사상 류례가 없는 화선휴양소가 생겨나게 되였다.

몸소 조직해주신 구출작전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0(1951)년 11월초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한달동안 적기를 5대나 쏴떨군 나어린 전사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그의 위훈을 두고 만족해하시던 그이께서는 대단하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그 전사의 이름과 나이, 고향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일군은 전사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적구에서 살고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인민군군인들은 당과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원쑤를 격멸하는 전투에서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영웅하게 싸우고있다고, 이런 훌륭한 군인들의 가족들을 적구에서 구출하고 잘 돌봐주는것은 우리 지휘관들의 혁명적의리라고 하시였다.

일군으로부터 전사의 고향으로 나가는 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적정을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1개 련대를 적후에 파견하여 영웅전사의 가족을 구출해올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피흘려 싸우는 전사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지체하지 말고 련대를 적후에 있는 전사의 고향으로 보내자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그후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전사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 진행되게 되였으며 이 소식은 전체 인민군지휘관들과 전사들을 무한히 고무하였고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게 되였다.

* * *

수필

하나의 전시물앞에서

얼마전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던 우리는 하나의 전시물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것은 전후 평양시복구건설의 휘황한 전망이 그려진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였다.

강사는 계획도에 그려진 평양시 한복판을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이며 다리들, 강의 량옆으로 쭉쭉 뻗어나간 거리들과 광장, 살림집들, 공원들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때 한 참관자가 강사에게 이렇게 물었다.

《지금 우리가 건너다니고있는 대동강의 다리들이 그때 벌써 여기에 그려져있었단 말입니까?》

강사는 《예, 어디 그뿐입니까? 모란봉에서 대동강을 따라 평행으로 대통로가 뻗어있고 동평양지구에는 문수거리가 세워져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저녁 오고가면서 늘 보아온 아름다운 평양의 거리들과 다리, 공원과 유원지들이 벌써 70여년전 전쟁시기 이 계획도에 그려져있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놀라움에 넘쳐있는 참관자들의 감탄의 목소리들을 듣느라니 순간 나의 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젖어들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시시각각으로 격변하는 정세속에서도 앞으로의 형세를 내다보는 사람을 가리켜 천리혜안의 예지, 선견지명을 가지고있는 위인이라고 칭하여왔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지구상에서는 크고작은 전쟁이 수많이 일어났지만 전쟁을 겪고있던 동란의 시기에 전후복구건설계획도를 설계한 그러한 나라, 그러한 위인은 일찌기 있어보지 못하였다.

그때는 비록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는 페허였지만 수도 평양을 전쟁전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웅장하고 현대적으로 복구건설하여야 한다는 웅대한 리상을 안으시고 작전도우에 화살표를 그으시던 붉은색연필로 손수 광장, 도로망, 주요시설들의 위치들도 하나하나 그려넣으신 위대한 수령님.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화의 나날 모란봉지하극장에서는 전후 평양시복구건설의 전망을 보여주는 전람회가 성황리에 열리였고 그 소식이 인민들과 인민군용사들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었으니 진정 그것은 사상과 신념의 제일강자이시고 강철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단행하실수 있는 대용단이였다.

그렇다. 그 휘황한 계획도가 있어 복구건설의 동음이 울려퍼지는 속에 세상을 놀래우는 《평양속도》가 창조되였고 100년이 걸려도 일어설수 없다고 하던 평양이 웅장화려한 락원의 도시로 솟아날수 있었다.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

이것은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모신 우리 조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승리의 설계도, 번영의 설계도였다.

나는 그 설계도따라 펼쳐진 사회주의락원에서 마음껏 자기의 희망을 꽃피우고 래일을 가꾸어가는 우리 인민처럼 행복하고 긍지높은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음을 다시한번 새겨안으며 이윽토록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본사기자 리해

소사하의 가을

(전호에서 계속)

나는 전에 무송에서 살 때 내 나이또래의 소년이 병든 어머니를 업고 남전자에서부터 소남문거리까지 땀을 철철 흘리며 걸어와 의원을 찾느라고 애쓰던 광경을 목격한 일이 있다. 그때 우리는 모두 그 소년을 보면서 효자라고 하였다. 김씨녀인의 말을 듣고나니 어쩐지 땀을 철철 흘리던 그 소년의 모습이 불쑥 떠올랐다.

그 아이에 비기면 나는 불효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었다. 내가 도대체 스무살이 넘을 때까지 어머니를 위해 해드린것이 무엇인가.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아래목도 권하고 우물터에서 돌아오는 어머니의 언손을 입김으로 녹여드리기도 하였다. 아침이면 어머니의 일손을 돕는다고 하면서 닭모이도 주고 초롱으로 물을 퍼다드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혁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머니를 위해 해드린것이 별로 없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올리사랑은 없다고 한 옛사람들의 말은 바로 나를 념두에 두고 지어낸 명제인지도 모르겠다. 올리사랑이 없다고 한 말은 참으로 현명한 말이다. 나는 아직 자식들에게 바치는 부모들의 사랑을 릉가하는 그런 효성으로 부모들을 섬기고 모신 자식들이 있다는 말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다.

《철주야,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남긴 말씀은 없었니?》

나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 남긴 유언이 어찌 그것뿐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철주에게 또 물었다.

철주는 손등으로 눈두덩을 문지르고 목쉰 소리로 대답했다.

《형을 잘 도와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형을 잘 도와드리구 형과 같은 혁명가가 되면 지하에 가서도 편히 잠들수 있다구…》

그러고보면 어머니의 모든 정신력은 마지막 순간에도 오직 혁명 하나만을 위해 소모된것이였다.

나는 동생들을 데리고 그달음으로 어머니의 묘소에 찾아갔다.

느릅나무고목이 외따로 서있는 언덕받이 한옆에 수박무늬모양으로 떼장을 덮은 어머니의 묘소가 있었다.

나는 군모를 벗어쥐고 두 동생과 함께 그 묘앞에 절을 드리였다.

(어머니, 성주가 왔습니다. 불효막심한 이 아들을 용서해주십시오. 남만에 갔던 걸음이 늦어져서 이제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땅우에 주저앉아 이런 속대사를 하고있을 때 철주가 느닷없이 묘우에 엎드려 손으로 떼장을 우벼내였다.

《뭘 그러고있느냐?》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동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철주는 대답대신 눈물을 뚝뚝 떨구며 량강구에서 내가 가지고온 첩약봉지들을 봉분밑에 무데기로 파묻는것이였다.

동생의 그 말없는 행동이 그만 내 가슴에 연기처럼 서려있던 비애를 사정없이 건드려놓고야말았다. 나는 봉분우에 엎드려 오래도록 서럽게 울었다. 혁명가로부터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 되돌아온것이다.

지상만물이 그 무덤 하나로 응결되고 세상만사가 어머니의 상실이라는 하나의 비극으로 압축된것같은 순간이였다. 그러나 머리우에서는 푸르디푸른 가을하늘이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명랑하게 대지를 굽어보고있었다. 어쩌면 저 하늘이 우리의 슬픔앞에서 저렇게도 태연할수 있을가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다. 그것은 망국의 년륜이 스물두돌기나 감긴 1932년의 음산한 여름에 있었던 비극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는 좀더 오래 이 세상에 살아있었을것이다. 어머니의 병은 고생끝에 생긴것이였으며 그 고생은 망국의 시운이 빚어낸것이였다.

자식들을 위해 바친 어머니의 로고는 참으로 헤아릴수 없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 기울인 효성이 열이라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 부은 사랑은 천이나 만으로도 헤아릴수 없을것이다.

나는 지하활동을 하던 시기 4~5명의 공청원들과 함께 무송시가에서 적의 포위에 든적이 있었다. 포위를 헤치고 싸움을 하면서라도 현성밖으로 나가야겠는데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리허에 있는 우리 동무들한테 가서 무기를 받아올수 없겠는가고 부탁하였다.

어머니는 내 청을 쾌히 받아들이였다.

《그까짓것 못하겠니. 내가 가서 가져오마.》

말리허에 간 어머니는 우리 동무들한테서 권총 두자루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때 말리허의 우리 동무들은 어머니의 요구대로 당기면 나갈수 있게 권총을 장탄까지 해주었다. 어머니는 그 싸창들을 소고기갈피속에 넣어이고 성문을 대담하게 통과하였다. 성문앞에서 경찰들이 그 소고기함지를 가리키며 《그건 뭐야?》 하고 물었으나 어머니는 태연하게 《소고기웨다.》라고 대답하였다. 경찰들은 함지우에 씌워놓은 종이장만 들춰보고 어머니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나는 장탄을 하고 안전장치까지 풀어놓은 권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큰일날번했구만요. 이 총들에 총알을 왜 재웠습니까?》

《내가 너희 동무들을 보고 재워달라구 했다. 놈들이 이 함지를 수색하면 답새기자구 말이다. 기껏해야 두놈이나 세놈쯤 달려들겠지. 접어들면 한놈이라도 쏘고 나도 죽을 생각이였다.》

어머니의 그 말씀속에는 우리의 체험이나 천박한 사고방식으로써는 도저히 가늠하기 어려운 고결한 넋이 깃들어있었다. 자식들이 하는 일에 대한 리해와 열렬한 공감이 없이는 감히 흉내도 낼수 없는 용기였고 참사랑이였다.

우리가 구안도에서 마춘욱의 집 곁방살이를 하고있을 때였다. 하루는 우리 동무들이 권총을 손질하다가 오발해서 어머니의 다리를 다치였다. 치료를 잘하지 않으면 생명을 건드릴수도 있는 위험한 총상이였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였다. 누가 물으면 아침에 물을 던지러 나갔다가 락상하여 다리가 골절이 됐다고 하였다. 상처도 보이지 않고 이불을 쓰고 누워있으면서 비밀리에 형권삼촌의 간호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원망하거나 오발을 한 사람에게 언짢은 기색을 지어보이지 않았다.

오발사고를 낸 동무는 너무나 미안해서 죽으려고까지 하였다.

어머니는 그 소문을 듣자 대노하여 《그러면 못쓴다.》고 꾸짖었다.

《너희들이 총이 서툴어서 그런것인데 그래도 다행이다. 사내라는것들이 그만한 일에 자살을 하다니. 그런 생각일랑 말구 비밀들이나 잘 지킬 궁리를 해라. 이 비밀이 새면 너희들도 큰일이 나고 이 집에도 큰일이 난다. 그리구 너희들은 성사를 못한다.》

어머니는 다리의 총상보다도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는 사실이 경찰에 알려지는것을 더 두려워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백두산(2)

- 백두산천지의 형태학적 크기와 특징 -

지구상에는 화산도 많고 호수도 헤아릴수없이 많다.

그러나 백두산천지와 같이 화산이 분출한 높은 산꼭대기의 분화구자리에 생긴 크고 깊은 호수는 찾아보기 힘들다.

해발높이 2 000여m나 되는 높은 산정에 위치한 백두산천지는 규모가 크고 수심이 깊으며 물량이 방대한것이 특징이다.

백두산천지는 분화구의 밑부분에 해당되며 분화구의 형태학적크기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천지는 면적상으로 볼 때 분화구 총면적(19. 81㎢)의 약 45%를 차지하며 용적에서는 약 26%, 깊이에서는 약 1/2.5을 차지한다.

천지상공에서 내려다보면 천지의 형태는 신통히도 사람의 심장을 꼭 닮고있다.

천지의 기반암은 현무암, 조면암, 류문암, 응회암으로 되여있다. 천지의 밑바닥에

는 부석, 모래, 감탕 등이 깔려있다. 천지의 기본물원천은 대기강수이며 여기에 천지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지하수가 보충된다. 천지는 둘레의 길이가 14.4km이고 최대길이가 4.64km이며 최대너비는 3.55km이다.

그리고 면적이 9.16km²이고 최대수심은 384m이며 물용적은 19억 5 500만m³이다.

천지에서는 떠살이식물, 수중식물, 물속곤충류들과 세계적으로 제일 큰 천지산천어와 빙어가 서식하고있다.

- 백두산의 지형학적특징 -

백두산은 명산중의 명산으로서 특이한 지형학적특징을 가지고있다.

백두산의 특이한 자연경관은 주로 백두산의 화산활동과 그에 결합된 기후조건을 비롯한 자연지리적요소들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만년전에 이 일대에서 지질학적운동으로 지각이 갈라지면서 생겨난 틈을 따라 땅속깊이에서 1 000℃이상의 뜨거운 돌물이 우로 솟구쳐오르면서 화산이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화산활동의 전반기에는 주로 현무암, 부분적으로 조면암의 용암들이 류출되여 지구대렬하의 량쪽으로 흘러나갔다. 이 용암들의 분출은 10여차례 반복되였고 그 결과 광대한 백두용암대지가 형성되였다. 백두화산렬의 주요화산추들이 형성된 다음 화산활동은 비교적 미약하였다. 이때 백두화산후반에 대연지봉, 소연지봉, 대각봉, 무두봉, 베개봉, 청봉 등 부속화산들이 형성되였다.

백두산에는 여러가지 빙하지형들도 발달되여있다.

백두산마루는 2 000m이상의 높은 봉우리들이 60°이상의 급한 절벽을 이루면서 병풍처럼 천지를 둘러싸고 솟아있다. 각이한 모양과 높이를 가진 봉우리들은 서로 잇닿아있기때문에 멀리서 바라보면 유순하고 평퍼짐하여 어디서나 오갈수 있을것 같지만 천지호반에서 둘러보면 산악이 험준하고 벼랑도 높고 험한 칼벼랑으로 되여있다.

백두련봉에는 장군봉과 같이 높고 큰 봉우리가 있는가 하면 낮은 봉우리도 있으며 뾰족봉이 있는가 하면 꼭대기가 마치 가마뚜껑처럼 생긴 두리뭉실한 봉우리도 있다. 천지를 둘러싸고있는 봉우리들은 모두 백두련봉에서 제일봉인 장군봉에 뿌리를 두고 이와 잇닿아있다. 분화구의 외륜산을 이룬 수많은 봉우리들가운데는 해발높이가 2 500m이상 되는것만 해도 20여개나 된다. 제일 험한 바위벼랑으로 되여있는 비류봉일대는 백두산분화구의 산악미를 대표하는 하나의 독특한 산체로서 비교적 뚜렷한 줄기를 이루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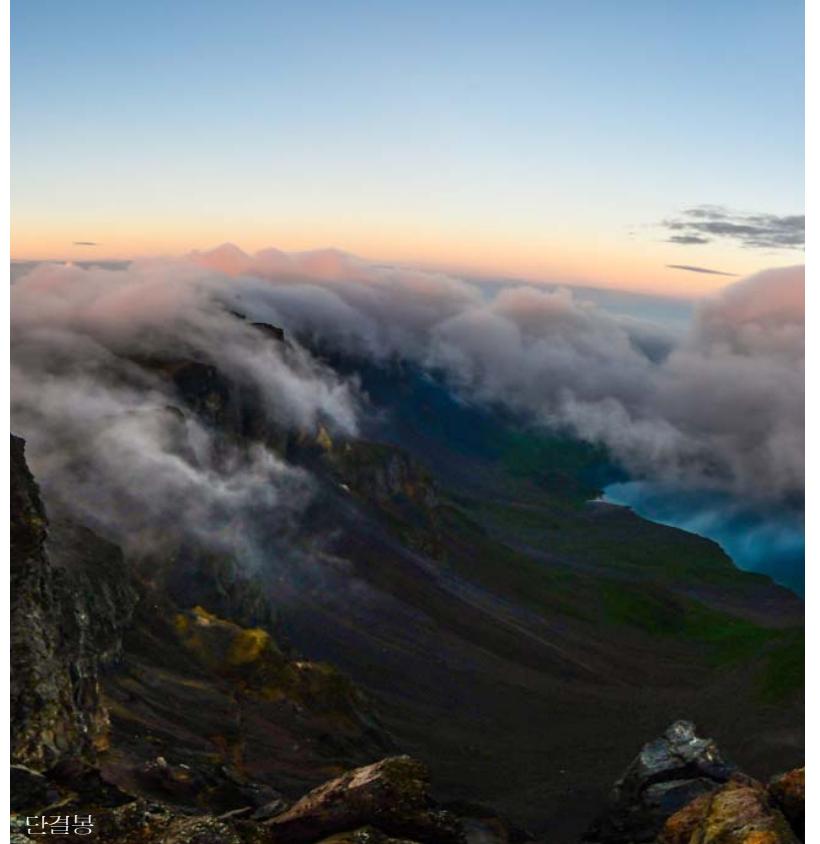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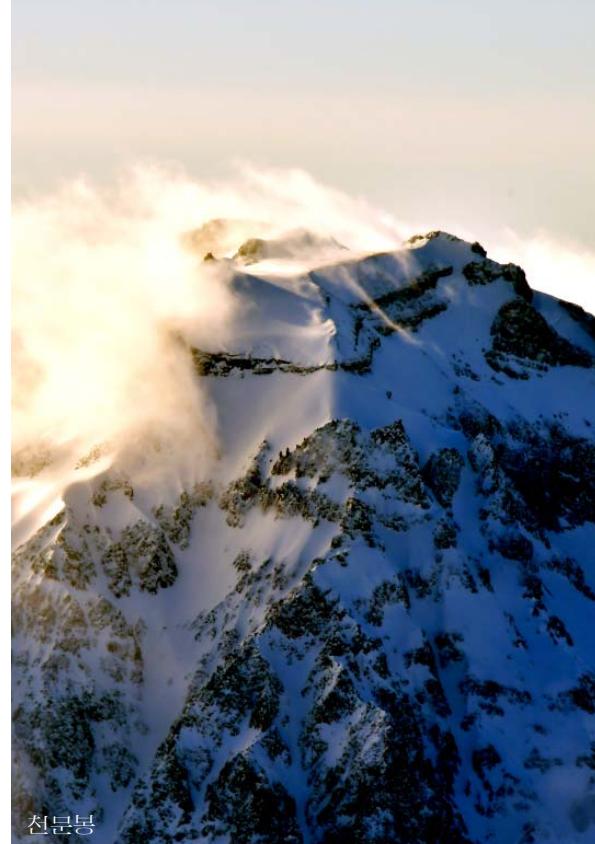
백두산의 기후는 해발높이가 높기때문에 고산기후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이 지구는 조국에서 가장 춥고 기후변화가 제일 심한 지역이다.

그리하여 백두산에서는 하루에도 몇번씩 마치 천지가 조화를 부리는것처럼 비바람 한점없이 고요하던 호수가에 난데없는 폭풍이 일어나 비구름을 몰아오고 돌을 날리다가도 대지를 덮었던 검은구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 그러다가도 금시 내리던 비가 어느사이에 우박으로 변하여 주먹같은 우박이 앞을 가려볼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내리기도 한다. 우박이 멎으면 한쪽에서는 비에 젖은 꽃송이들이 해빛을 받아 활짝 피여나는데 한쪽에서는 겨울을 방불

천문봉

비류봉

장군봉

단결봉

케 하는 하얀 눈송이들이 날리기도 한다.

백두산의 해돋이는 그 어디서도 볼수 없는 황홀하고 아름다운 해돋이로서 제일가는 경치이다. 먼 동쪽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하면 아득히 펼쳐진 밀림의 바다를 넘어 끝없이 뻗어나간 조국의 산발들, 실안개를 허리에 두른 백두령봉과 기암절벽들에는 감색, 붉은색으로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노을이 피여오르기 시작하고 삽시에 그 색갈이 점점 짙어져 하늘땅 모두 불붙는듯 붉게 물든다.

백두산일대에는 백두산천지를 비롯하여 크고작은 호수들과 샘들도 많다.

백두온천을 비롯한 천지일대의 온천들은 열원적견지에서 볼 때 지열과 화산가스의 열에 의하여 높은 온도를 가지는 온천과 지열을 받아 더워진 물이 솟아오르는 두가지 형태로 구분할수 있다.

백두산에는 천지에 시원을 둔 폭포들도 있다.

천군바위를 지나 압록강변을 따라 올라가느라면 마치 하얀 비단필을 드리운것과 같은 백두폭포가 있다. 높이가 20m인 이 폭포주변의 바위들에는 꽃이 만발하는 봄철과 단풍지는 가을에도 은빛고드름이 줄줄이 달려 고산초원일대의 신비경을 이루고있다. 백두산에는 이와 함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세번 꺾어내리는 사기문폭포, 2개의 폭포가 바위벼랑을 가지런히 떨어져내리는 형제폭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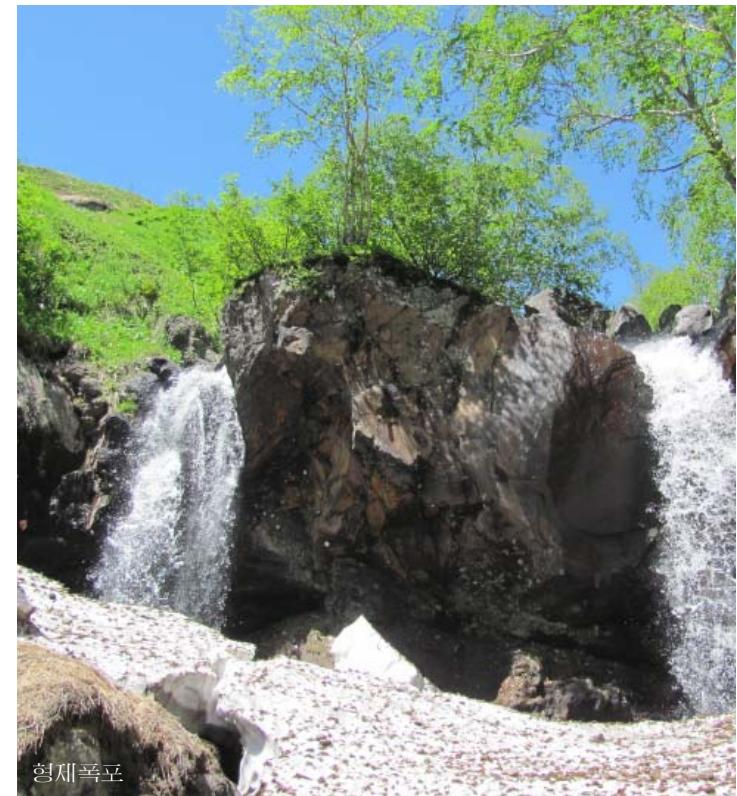
소백수골안에 있는 백두폭포의 높이는 50m로서 백두산의 폭포들가운데서 제일 높고 장쾌한 폭포이다.

백두산주변의 50여개소에서 샘이 용출되는데 그중에서 천지에 시원을 둔 샘은 압록강발원지점, 백두산밀영샘, 봉수동샘을 비롯하여 여러 샘들이 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지형학적 특징들은 백두산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독특한것이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변찬우

백두폭포

형제폭포

백두산의 해돋이

전쟁물주제 소설작가 허문길

조국인민들이 애독하는 소설들가운데는 허문길선생의 장편소설이 적지 않다.
그의 작품들은 전쟁물주제로 관통되여있는것이 특징이다.

허문길선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도 어언 70여년이 된다. 그러나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전승세대들의 위훈은 대대손손 전해지고있다. 내가 그들의 위훈을 전해가는 소설창작의 길에 들어선것은 후대들이 전쟁물주제의 소설들에 그려진 영웅들의 넋을 그대로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독자들이 보풀이 일도록 보고 또 보고있는 장편소설 《포성없는 전구》(1부-2부), 그 창작경위와 발행후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어느날이였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친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적위훈을 세운 용사들에 대한 소설을 쓸 결심을 안고있던 허문길선생은 어느날 한 동료로부터 70고령의 녀성영웅(로남교, 당시 76살)이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살고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취재길에 올랐다.

로남교녀성은 《먼저 가신분들이 나를 욕해요.》라는 짧은 말로 거절했다.

그러나 그는 락심하지 않고 녀성영웅을 계속 찾아갔다. 몇번의 걸음끝에 영웅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허문길선생은 《후대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하며 몇번이고 설복하였다.

이렇게 되여 허문길선생은 왕년에 지와 미를 갖춘 미인으로 소문났던 녀성영웅과 마주앉게 되였다. 그때 영웅은 나이가 많고 전쟁시기 적들에게 체포되여 당한 모진 고문의 후과로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불편한 몸이였지만 지난 일들을 생동하게 기억하고있었다.

허문길선생은 꽃나이청춘을 조국에 바친 녀성영웅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끓어오르는 창작적흥분을 안고 펜을 달려 6개월만에 2부작으로 된 장편소설 《포성없는 전구》를 내놓았다.

발행후 하루는 그에게 소년단원들이 찾아와서는 《우리도 커서 선생님이 쓰신 소설의 영웅들처럼 살겠습니다.》라고 씩씩하게 말하였다.

허문길선생은 평안남도 평성시의 어느한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녀선생에게서도 편지를 받았다. 녀선생은 장편소설 《포성없는 전구》를 감동깊게 보았다고, 제자들을 조국을 위해 자기의 귀중한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쳐싸운 작품의 주인공과 같은 나라의 기둥감들로 키워내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허문길선생은 전국각지에서 날아오는 이러한 독자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작가로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군 하였다. 동시에 문학의 참의미를 재음미해보는 기회도 갖군 하였다.

바다속깊은 곳에서 진주를 캐내듯 소설속에서 아름다운 인간들을 형상해내여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속에 쪼아박아 그 진주처럼 인간의 안팎모양새를 다듬어주며 나아가서 사회를 더 훌륭히 가꾸어가는것, 바로 이것이 문학이라고 그는 확언하였다.

하기에 달리는 그의 펜끝에서는 수많은 진주들이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 진주들은 또 수많은 진주들을 낳았다.

그가 창작한 장편소설 《력사의 대결》(1부-4부)의 원형인 공화국영웅 성시백도 그 아름다운 진주의 하나이다.

처음 그는 성시백의 투쟁자료들을 보았을 때 창작적령감과 흥분속에 조선과 미국의 대결은 말그대로 수호자와 침략자와의 력사적대결이라는 종자를 찾아쥐였다.

이렇게 장편소설의 제목을 달아놓은 그는 주인공의 지위와 격에 맞게 폭이 넓고 심도가 있으며 지성미가 넘치는 대서사시적인 작품을 써보자고 마음먹었다.

무릇 창작적고충속에 작가의 키가 크는것은 사실이지만 허문길선생은 소설을 전개해나갈수록 신심이 없어지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한것은 력사의 대결을 펼쳐보이려면 어차피 당시의 시대모습을 정면에서 전면적으로 파헤쳐야만 하였고 소설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도 이미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 형상되여있었기때문이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실지 력사에 대결한다는 심정으로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 영웅의 품격과 지성도, 철학적심도가 훌륭히 보장된 다부작장편소설 《력사의 대결》을 내놓게 되였다. 소설은 출판되여나오자마자 독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승업적을 감명깊이 보여주는 장편실화소설 《령장의 보검》을 비롯하여 10여편의 전쟁물주제의 소설과 100여편에 달하는 단편소설, 실화, 영화문학, TV련속극문학, 장막극을 창작하였다.

올해 77살인 허문길선생은 독자들이 나름대로 머리속에 그려보는 표상과는 전혀 달리 너무도 평범하고 소박한 모습이다.

그러나 그 소박함속에 강한 극성과 간결하면서도 통속적인 언어구사, 실감있고 생동한 세부묘사로 특징지어지며 치차처럼 맞물린 째인 구성과 여러 분야의 지식을 담고 한번 붓을 들면 놀라운 속도로 글을 써나가는 문필가로서의 남다른 창작적기풍이 슴배여있다.

함경북도 화대군의 궁벽한 산골에서 여섯형제의 셋째아들로 태여난 그는 어릴적부터 책읽기를 즐겨했고 군사복무시절에는 문학작품을 창작발표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를 졸업하고 어느한 중앙기관에서 사업하던 그는 50대에 이르러서야 작가대렬에 들어섰다.

창작의 나날 그는 **김일성**상계관인의 값높은 영예를 지니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일흔번째 생일상을 받아안았을뿐 아니라 두해전 4월에는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에 보금자리를 폈다.

지금 그는 경루동에 자리잡은 보금자리의 불밝은 서재에서 새 작품창작을 다그치고있다.

불타는 열정과 뛰여난 재능으로 조국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과 애국주의교양에 큰 공헌을 한 허문길선생을 인민은 존경하고있으며 그의 다음작품을 기다리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녀성대의원들

나라의 강화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있는 대의원들속에는 녀성들이 적지 않다. 그들가운데서 몇사람을 소개한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림정국

《우리 대의원》

평양시 평천구역에는 평천1동안의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한 일군이 있다.

그가 바로 중앙은행 선화전자상업교류사 사장으로 사업하고있는 평천구역인민회의 대의원 강혜경이다.

몇해전 강혜경은 평천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그는 자기를 대의원으로 내세워준 인민들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갔다.

그는 자주 자기가 담당한 지역에 나가 주민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인민정권기관에 제때에 반영하여 풀어나갔다.

몇해전 국가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되였을 때 그는 가정에서 마련한 10여종에 200여가지나 되는 의약품들 그리고 많은 식량과 남새를 매 세대들에 나누어주어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어느한 아빠트의 수도관공사에 필요한 물자들이 제때에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그곳 주민들의 먹는물문제가 짧은 기간안에 해결되도록 하였다.

강혜경은 금융봉사사업에서도 일군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고있다.

그러한 강혜경을 두고 구역안의 사람들은 《우리 대의원》이라고 정담아 부르고있다.

실농군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농장 경리 윤춘화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다.

청산농장은 전국적으로 첫손가락에 꼽히는 본보기농장이라고 할수 있다.

해마다 이 농장의 작황은 다른 농장에 비할바없이 높다. 다른 지역보다 땅이 비옥하여서도 아니고 특별히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다.

그 비결에 대해 알고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윤춘화는 《땅은 거짓을 모릅니다.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이 우리 농장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농장벌에 진심을 묻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나가고있습니다.》라고 대답하군 한다.

바로 두해전 례년에 없이 빨리 들이닥친 폭우로 하여 한창 벼가 자라던 온 농장벌이 한주일이나 물에 잠겼을 때 올해 농사는 페농했다고 손맥을 놓고 나앉은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윤춘화를 비롯한 농장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논벌의 물이 찌자 협의회를 거듭하면서 벼의 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관찰하였다. 그 과정에 벼대는 썩었지만 뿌리의 영양이 좋기때문에 이제라도 새 줄기를 자래우면 겨울이 오기 전에 능히 알찬 열매를 수확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하여 이들은 대담하게 한달이상 자란 벼대들을 서슴없이 베여냈다. 그를 비롯한 농장원들은 수십일동안 온갖 성의를 다해 벼포기들을 가꾸어 그해 가을 년간 알곡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윤춘화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답게 자기 농장만이 아닌 나라의 모든 농장들에서 해마다 높은 소출을 거두도록 하기 위해 늘 사색과 탐구를 기울이고있다. 그는 농업기술성과들이 이룩되면 자기 농장에 먼저 도입해보고 그 생활력과 우월성을 검증한 후 전국의 모든 농장들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외에도 그는 농장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살림집문제, 먹는물문제, 어린이들의 보육교양문제 등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대책해나가고있다.

그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사업하고있는 년한은 16년이나 된다.

인민의 기대를 자각하고

김성희가 평양가방공장 지배인으로 임명받은것은 2년전이였다.

그전까지만 하여도 그는 보통강신발공장 기사장으로 있었고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처장으로도 사업하였다. 시안의 생산현장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파악이 있었지만 평양가방공장 지배인이라는 직무를 맡게 되자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감을 자각한 그였다. 그는 자기 사업의 첫시작부터 《소나무》책가방을 더 잘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모를 박고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는 일군들로부터 로동자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과학기술보급실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실속있게 참가하도록 하며 창의고안과 기술혁신에서 모범인 종업원들을 우대하고 평가해주는 사업을 따라세웠다.

이러한 사업들은 그대로 생산성과로 이어져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되였으며 각이한 형태의 《소나무》책가방은 평양시안의 학생들속에서 더욱 인기가 높아졌다.

그러한 속에 지난해 11월 김성희지배인은 만사람의 믿음과 지지속에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김성희는 《인민의 대표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인민의 리익실현을 위해 한가지라도 더 유익하고 훌륭한 일을 찾아하겠다.》라고 하였다.

어머니의 기쁨

-평양시 대동강구역 탑제3동 43인민반에 살고있는 최순임가정을 찾아서-

평양시 대동강구역 탑제3동 43인민반에 살고있는 최순임녀성은 올해 35살이다.

보기 좋은 중키에 세련미가 엿보이면서도 얼핏 보아서는 아들딸 네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라는것을 분간하기 어렵다. 막내인 4살 난 아들 권령이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동네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있는데 탁아소에서는 우리 글읽기와 속셈을 잘하여 신동이로 불리우고있다.

13살인 맏딸 경미와 11살인 둘째딸 경임이, 7살인 셋째딸 경아 역시 공부를 잘하고 곱게 생겼으며 명랑하고 도덕도 밝아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있다.

자식들도 그러하지만 최순임녀성도 동네가정부인들로부터 권령이엄마는 나날이 젊어진다는 부러움섞인 인사말을 듣군 한다.

나라의 은정속에 마련된 다산모치료권으로 의료봉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때에도, 국가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식료품, 공업품을 공급받을 때에도, 자기 자식을 돌봐주듯 혈육의 정을 안고 집에 자주 찾아와 온갖 지성을 다하는 구역과 동의 일군들, 이웃들을 대할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행복의 파도가 출렁이군 한다.

그뿐이 아니다. 몇해전 최순임가정은 다자녀세대라고 국가에서 배정해준 덩실하게 큰 새 집에 보금자리를 펴는 경사도 맞이하였다.

예로부터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잘새 없고 자식많은 어머니 옷고름마를 날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자식은 많아도 근심과 걱정보다 보람과 긍지가 더 많다.

그가 네 자식의 어머니가 된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함경남도 리원군에서 태여난 그는 조선인민군 군관인 아버지와 군인가족생활을 하는 어머니에게서 한가정의 행복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자래우며 성장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1990년대부터 근 20년간 원군길을 걸어왔다. 군사복무를 하던 그의 오빠도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의 꽃다운 청춘을 바친 애국렬사이다.

아들의 영웅적인 희생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병사들을 위하여 자신을 바쳐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어릴적부터 눈에 익히고 가슴에 새겨안으며 순임은 어머니가 걸어온 그 길을 자기가 대를 이어갈 결심을 굳히였다.

그런데 순임이 어린 두 딸자식을 가진 어머니가 되였을 때 그는 조선인민군 군관인 남편을 따라 평양에 이사를 오게 되였다.

어느날 김재숙녀성은 딸 순임이와 사위에게 나라의 기둥감들을 많이 낳아키우는데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가정들이 늘어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속에 바로 우리 가정도 있었으면 한다고 절절히 이야기하였다.

순임의 부부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애국의 길을 걸어온 어머니의 뜨거운 당부를 가슴속깊이 새겨안았다.

이렇게 되여 그의 가정에 셋째딸과 막내인 아들애까지 태여났다.

순임녀성이 넷째를 또 임신하였을 때 그의 몸상태는 이전과 달랐다. 아이와 산모의 건강이 위태로워졌을 때 평양산원의 의료일군들은 즉시 그를 입원시켜 무사히 해산하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임산모들에게 차례지는 국가적혜택을 고스란히 받아안으며 근 1년간이나 입원치료를 받은 그는 건강한 몸으로 아이와 함께 병원문을 나섰다.

나라의 혜택과 이웃들의 뜨거운 인정속에 묻혀 나날이 커가는 자식들을 볼 때마다 최순임녀성은 조용히 눈시울을 적시군 한다.

자식을 낳고 돌봐주는것은 어머니로서 응당 해야 할 의무이지만 온 나라 가정의 모든 녀성들과 아이들 특히 다자녀세대들을 더없이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당의 은덕이 너무도 고마워 그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어머니가 되는것, 자식을 낳는것이 죄가 되여 일자리마저 잃지 않으면 안되는 많은 나라들에서는 녀성들이 자식을 낳지 않고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것을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애국사업으로,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락으로 되고있습니다. 저는 네 자식모두를 잘 키워 조국보위초소에 세우겠습니다.》

그는 애국사업과 원군사업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있으며 자식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에도 뜨거운 지성을 바쳐가고있다. 그것은 그대로 자식들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려해
사진 본사기자 김평

피복공업의 비약을 예고한 전시회

지난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조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화창한 봄계절의 정서를 더욱 이채롭게 해주며 《봄철피복전시회-2024》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조선피복공업협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우리 시대처럼 눈부시게, 우리 리상처럼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인민들의 옷차림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라의 피복공업을 한계단 도약시켜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던것처럼 이번 전시회에도 희망하는 전국의 모든 피복제품(편직 및 뜨개제품, 가죽피복제품, 운동복 포함)생산단위들과 천생산단위, 신발, 가방, 목수건, 브로치, 머리빈침 등 옷차림에 어울리는 경공업제품을 생산하는 단위들, 의상미술도안을 창작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 창작기관, 피복제작단위, 기타 애호가들이 참가하였다.

봉화무역국, 은하무역국, 평양시, 강원도, 함경북도, 국가영화총국 내고향영화무역회사, 중구역종합양복점을 비롯한 270여개의 단위들에서 20여종에 5만여점의 봄, 여름계절 녀성옷과 남성옷, 어린이옷들을 전시회에 내놓았다.

대형전광판을 중심으로 조형예술적이면서도 립체감이 나게 꾸려진 전시회장에는 계절에 맞는 다양한 옷차림에 어울리도록 가방, 머리빈침, 브로치, 화장품들도 전시되여있었다.

뿐만아니라 다양한 옷형태와 함께 가방, 신발과 여러가지 기호품들의 조화와 완성미를 실감할수 있게 가상현실공간을 제공하는 증강현실거울도 있어 사람들은 옷을 직접 입어보지 않고도 짧은 시간에 자기의 몸매와 기호에 맞는 형태와

색갈의 옷을 선택할수 있었다.

대동강구역 릉라2동에 사는 김일심녀성은 이전의 전시회들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부류, 새로운 종류의 피복제품들이 많이 출품된것이 특징적이라고, 우리의 생활속에 널리 알려진 제품들도 그 가지수가 훨씬 많아져 미처 어느것을 고를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전시회참가자들도 누구라 할것없이 참관자가 되였다.

대성무역지도국 일군인 원송이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배운것이 정말 많았다, 피복가공기술을 하루빨리 발전시키려는 제작자들의 경쟁열의가 간단치 않다는것을 느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앞으로 더 분발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였다고 하였다.

강원도 원산시편의봉사관리소의 옷제작자들은 전시회 그자체가 하나의 기술교류와 이전의 좋은 공간이라고 하면서 자기 단위 옷제품들을 다른 단위들과 대비해보면서 그전에 미처 몰랐던 부족점들도 알게 되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도 찾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전시회가 옷가공실태와 발전을 한눈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볼수 있어서 좋다고, 앞으로 이런 전시회에 몇번 더 참가하면 자기들도 얼마든지 중앙의 피복제작단위들 못지 않은 훌륭한 옷도안과 제품들을 내놓을것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번 전시회기간에는 피복부문 기술강습 및 경험발표회도 진행되였다. 평양미술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 등의 권위있는 교원, 연구사들과 높은 옷가공기술로 하여 소문난 여러 제작단위의 도안가, 재단사들이 출연하여 피복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경험, 새 자료들을 발표하였다.

전시회에서는 조국인민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감정정서에 맞는 각종 형태와 색갈의 옷제품들이 판매, 주문봉사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조선피복공업협회 일군인 윤홍길은 《우리 시대처럼 눈부시게, 우리 리상처럼 아름답게》라는 주제가 보여주는것처럼 보다 새로운것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문화수준, 문명수준이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였다고 하였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리철

스스로 걸머진 짐은 무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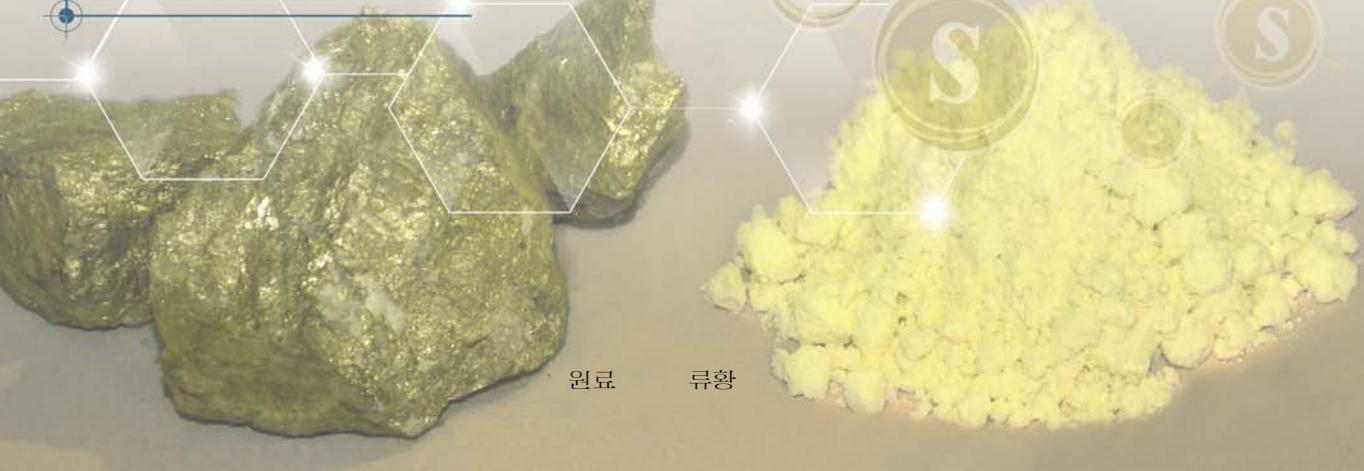
최근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이 국내의 원료에 의한 류황생산기술을 확립하였다.

류황은 화학공업과 경공업, 농업과 의학부문 등에서 많이 쓰이는 중요한 기초원료의 하나이다. 지난 시기 천연류황이 없는 조국에서는 류황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루빨리 국내에 무진장한 원료에 의한 류황공업을 창설하는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긴절하게 요구하는 문제였다.

이곳 연구집단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것은 몇해전 어느한 단위의 고온녹방지칠감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할 때였다고 한다.

그때 이 연구집단을 이끌고있던 대학의 자원응용연구소 소장 박사 부교수 김성민은 연구사들과의 심중한 토의끝에 이 연구과제를 자신들이 맡아 해결할 용단을 내리였다. 물론 그들이 이 부문에 대한 경험이나 어떤 기술적담보가 있어서 그런것은 아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고온녹방지칠감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사업 하나만 하자고 해도 힘에 부치였다.

하지만 고온녹방지칠감생산공정을 완성한다고 해도 기초원료인 류황을 수입에 의존한다면 생산정상화를 실현할수 없었다. 하여 이들은 생산공정연구에 앞서 기초원료해결을 위한 연구사업을 선행시켰다.

원료 류황

그들은 문헌조사와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종전의 류화철광으로부터의 류황생산기술은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뿐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얻게 되였다.

그들은 환경보호형, 에네르기절약형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생산기술을 확립할 목표밑에 연구에 달라붙었다.

그들은 수많은 기술문헌들을 탐독하고 류황생산원리들을 더 깊이있게 분석하면서 창조적지혜를 합쳐나갔다.

그렇게 두달이라는 기간이 흘렀지만 성공의 길은 묘연하였다.

그때 누가 연구과제를 준것도 아닌데 구태여 말아안고 고생을 사서 하는가고 의견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며 자기들이 제기한 목표를 향해 한걸음한걸음 전진해나갔다. 그 과정에 종전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선진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과학기술적가능성을 찾아쥐게 된 이들은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며 연구를 심화시켜 마침내 최적화된 류황생산공정을 훌륭히 완성하였다.

이곳 연구집단이 내놓은 류황생산방법은 생산공정확립에 필요한 설비들의 기술적요구수준이 높지 않고 공정관리운영이 간편하여 확대도입할수 있는 범위가 넓으며 에네르기를 절약하고 환경보호 등에도 유리하다.

이 류황생산공정을 제련소들과 화학공장들에 도입하면 류황은 류황대로 생산하면서도 아류산가스에 의한 부식과 환경오염문제를 완전히 해결할수 있다고 한다.

류황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인민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커다란 담보를 마련한 이곳 연구집단은 이후 초기의 연구목표였던 고온녹방지칠감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에서도 성공하여 나라의 칠감공업발전에도 기여하였다.

이곳 연구집단을 이끈 자원응용연구소 소장 김성민박사는 《나라를 위해 스스로 걸머진 짐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두어깨에 가해지는 중압감이 커질수록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은 가벼웠다.》고 이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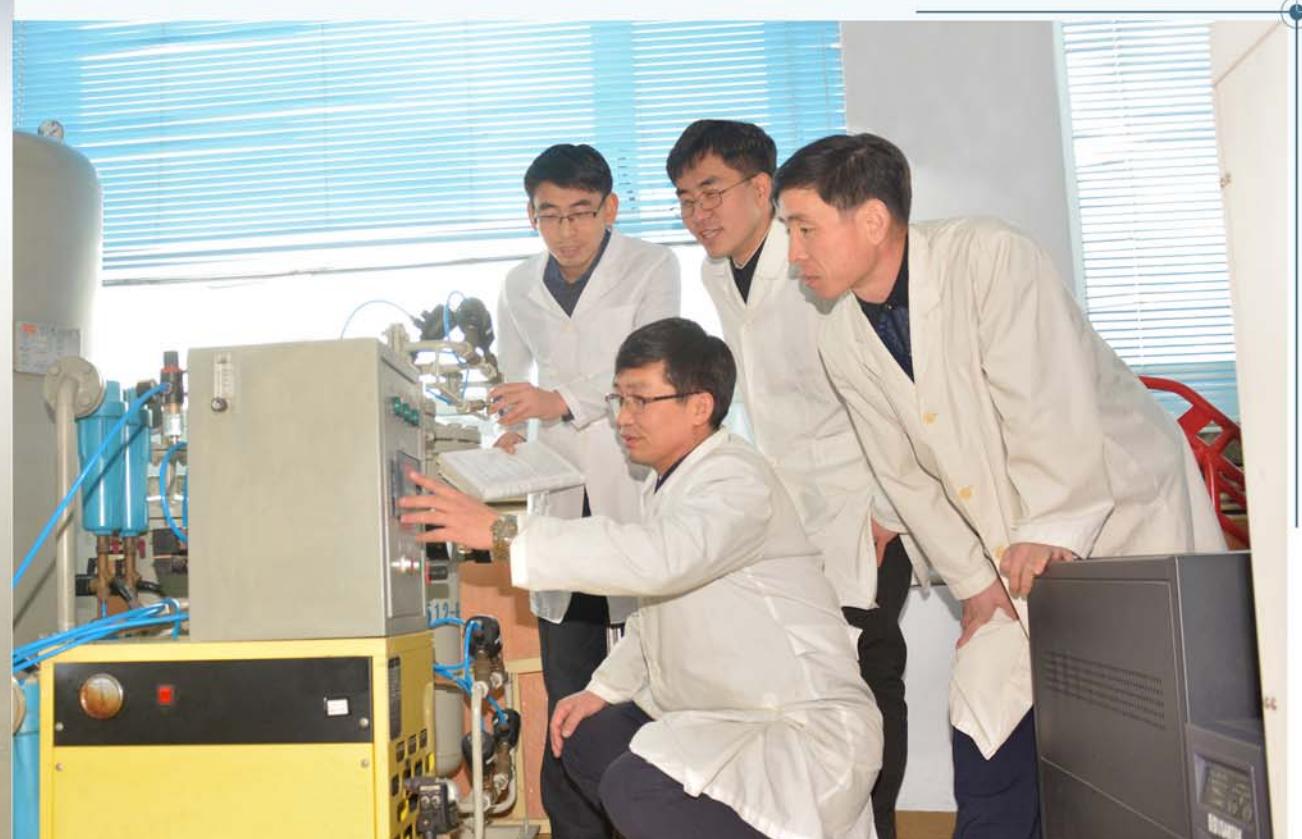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태권도, 그 이름과 함께

최홍희선생

조선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

태권도의 창시와 발전을 위해 한생을 바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최홍희선생이다.

이제는 최홍희선생이 세상을 떠난지도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이름은 전세계태권도인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여있다.

지난 6월 평양에서는 전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의 사망 22돐 추모행사가 진행되였다.

추모행사에는 국제태권도련맹과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들, 민족협회 대표들, 여러 나라의 태권도인들, 무도관계자들, 최홍희선생의 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조선태권도위원회, 관계부문 일군들, 태권도사범, 선수들도 함께 참가하였다.

최홍희선생의 묘에 국제태권도련맹,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조선태권도위원회,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해외동포사업국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꽃다발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최홍희선생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인 리용선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위원장은 추모사에서 태권도의 창시와 발전을 위해 한생을 바친 최홍희선생의 공적에 대해 언급하면서 오늘 국제태권도련맹은 145개의 민족협회와 수천만의 태권도수련생들을 망라한 권위있고 당당한 무도조직으로 장성강화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진정한 조국, 태권도모국의 품에 안겨 영생하는 최홍희선생의 이름은 전세계태권도인들과 무도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도 정의와 평화, 친선과 단결의 리념밑에 정통태권도의 세계적보급을 위해 모든것을 다할 의지를 피력하였다.

참가자들은 태권도성지관을 돌아보고 태권도전당에서 조선태권도위원회 사범, 선수들의 시범출연을 관람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를 계기로 정통태권도의 발전과 세계적보급에 기여한 마리오 보그다노브 국제태권도련맹 부총재와 마이클 프리웨트 유럽태권도련맹 위원장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훈장 제2급이 수여되였다.

청춘거리 체육촌에 있는 무도봉화대에서는 제9차 국제무도경기대회 봉화채화의식이 진행되였다.

채화된 봉화는 올해 11월 우즈베끼스딴의 따슈껜뜨에서 열리는 제9차 국제무도경기대회 개막식장의 봉화대에 지펴지게 된다.

의식에서는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위원장인 리용선 국제태권도련맹 총재가 연설하였다.

그는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열리게 될 제9차 국제무도경기대회가 전세계무도인들의 친선의 뉴대를 강화하고 국제무도운동의 발전을 추동하는 대회로 세계의 정의와 평화, 사회의 진보적발전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경기대회에 보내는 홰불봉이 채화되여 제9차 국제무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라지즈 하싸노브 우즈베끼스딴태권도협회 위원장에게 넘겨졌다.

최홍희선생의 묘소를 방문하고 화환들과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제9차 국제무도경기대회 봉화채화의식이 진행되였다.

태권도, 우슈, 가라데선수들의 모범출연이 진행되였다.

국제태권도련맹 집행위원회가 진행되였다.

제9차 국제무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라지즈 하싸노브 우즈베끼스딴태권도협회 위원장과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인 뱌체슬라브 찌모페예브 세계가라데동맹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들은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창립 25돐이 되는 올해 평양을 방문하여 태권도모국의 위상과 문명부흥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발전상을 체감하며 국제무도운동의 밝은 미래를 더욱 락관하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오늘의 성대한 회합을 마련해주고 국제무도경기위원회가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였다.

이어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공연과 태권도, 우슈, 가라데선수들의 모범출연이 진행되였다.

국제태권도련맹 집행위원회와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회도 진행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진행되였다.

전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의 사망 22돐 추모행사참가자들은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태권도성지관에 있는 태권도력사관, 만수대창작사 등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고향소식

산간문화도시 삼지연시를 찾아서

동포들에게 고향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선 삼지연시에로의 취재길에 올랐다.

평양-삼지연행렬차를 타고 삼지연청년역에 들어서니 우리의 마음은 저도모르게 높뛰였다.

삼지연!

그 이름만 조용히 불러보아도 절절한 그리움이 더해지는 력사의 땅의 숨결과 체취가 가슴한가득 차올랐던것이다.

우리는 먼저 삼지연시에 모셔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았다. 생전에 그처럼 념원하시던 인민의 리상도시가 삼지연시에 일떠선것이 그리도 기쁘신듯, 후손만대에 따뜻한 축복을 보내시는듯 미소를 지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를수록 우리의 눈시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손에손에 꽃다발을 든 답사행군대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드린 우리는 삼지연혁명사적관을 찾았다.

강사는 삼지연시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이야기해주었다.

수십년전 삼지연혁명전적지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에 즈음하여 삼지연을 하나의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되게 하며 삼지연읍(당시)을 훌륭히 건설할데 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유서깊은 삼지연을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로 꾸리는것과 함께 인민의 웃음꽃 만발하는 락원으로 보란듯이 일떠세우시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결심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지연인민들과 하신 그 약속을 희한한 현실로 더욱 활짝 꽃피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삼지연시는 조국의 문명을 대표하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몰라보게 전변되였다.

강사의 이야기를 감동속에 들은 우리는 사적관을 나섰다.

우리와 동행한 시의 일군은 삼지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앞 기본도로를 중심축으로 하여 교양구획, 살림집구획, 산업구획들과 도로의 방향과 특징에 따르는 밀영거리, 베개봉거리, 청봉거리, 봇나무거리, 리명수거리 등으로 되여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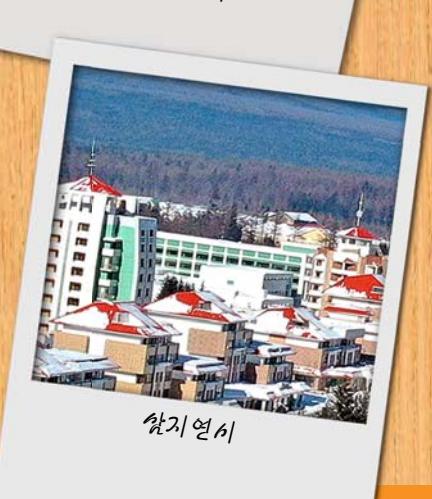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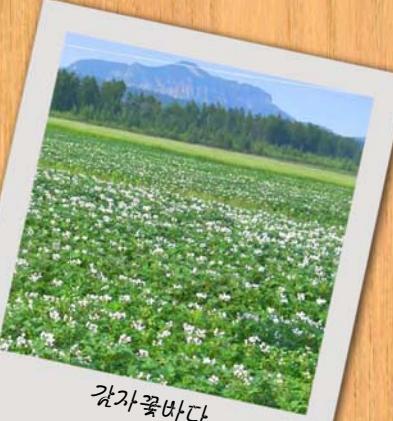
우리는 청신하고 깨끗한 십자형의 덩지 큰 건물에 이르렀다. 삼지연시병원이였다.

우리와 만난 병원원장은 《삼지연시건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일 관심하신 대상의 하나가 다름아닌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병원건설이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병원에는 내과와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는 물론 치과분원도 있어 이곳에 들어서기만 해도 병이 절반은 나을것만 같았다. 병원에 오는 주민들은 큰 병이 나면 의례히 도나 중앙의 병원부터 바라보군 하였는데 이제는 도시사람들도 부러워 찾아오는 희한한 병원에서

베개봉스키장에서

감자꽃바다

삼지연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페부로 느끼고있다고 말하였다.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일떠선 병원에서 울려나오는 진정어린 목소리들을 들으며 우리는 베개봉스키장이 한눈에 안겨오는 도로에 들어섰다.

동행한 일군은 베개봉기슭을 따라 길게 뻗어간 이 거리가 베개봉거리라고 하였다.

베개봉스키장과 속도빙상경기장, 빙상호케이경기관이 있는가 하면 숙소들과 려관들, 체육용품상점도 있어 베개봉지구는 겨울철체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진 하나의 거대한 체육촌이였다.

그래서 백두산지구 체육촌이라 부른다며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발자취가 스며있는 이곳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아래 오늘은 나라의 겨울철체육의 종합기지로 훌륭히 전변되였다는것이였다.

여러해전 북방의 사나운 혹한속에 몸소 이곳을 찾으시여 나라의 겨울철체육의 종합기지로 꾸리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스키선수들의 훈련모습도 몸소 보아주시며 그들과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그날을 되새겨보며 우리는 베개봉정점의 전망대에 올랐다.

둘러보니 흰구름을 산허리에 두르고있는 웅장한 포태산이며 푸른 하늘을 떠이고있는 주변의 높은 산발들로 하여 삼지연시는 하늘아래 첫 동네라고 부를만하였다.

베개봉전망대에서 내려다보니 시의 전경은 장관이였다.

각이한 건축양상의 소층, 다층살림집들과 매 구획을 특징짓는 웅건한 상징건물들모두가 주변의 경치와 기막힌 조화를 이루고있다.

들쭉향기가 물씬 풍겨올것만 같은 삼지연들쭉음료공장이며 증산의 동음높은 삼지연장공장을 비롯한 공장들,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이 옮겨온것만 같은 삼지연시과학기술도서관, 손님들로 흥성이는 천지원, 베개봉국수집,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넘쳐나는 삼지연학생소년궁전, 삼지연시민들에게 신선한 남새를 사철 공급해주는 삼지연온실농장, 푸른 인공잔디가 드넓게 펼쳐지고 다기능화된 체육관과 교실들을 갖춘 소학교와 고급중학교들, 그런가하면 불고기집, 막걸리집, 온반집, 체육기자재상점, 학용품상점, 샘물공급소 등 그 이름만 꼽자고 해도 아름찬 수많은 각종 봉사망들과 려관들이 다 보이였다.

삼지연, 옛날에는 산새들마저 깃들이기 저어하던 곳이였고 일제의 군사적강점에 짓밟혀 깊은 산속의 산전막에서 부대기밭이나 뚜지고 산짐승이나 쫓아다니며 죽지 못해 살아왔다는 할아버지, 할머니세대들의 피눈물나는 과거사가 깃든 곳이다.

그러한 곳에 천지개벽을 노래하는 인민의 리상향이 펼쳐졌으니 어데서나 끝없는 기쁨과 환희,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나왔다.

베개봉을 내린 우리는 둥근모양, 돛배모양, 다락식, 정원식 등 가는 곳마다, 보는것마다 각양각색인 멋쟁이살림집의 주인들도 만나보았다.

모든 조건이 그쯘히 갖추어진 전기난방화된 넓다란 방에서 아무 근심걱정없이 산다는 가정주부들의 이야기며 군사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자식들이 자기 집을 찾지 못해 《애》를 먹군 한다는 꾸밈없는 이야기들이 이구동성으로 흘러나왔다.

베개봉동 39인민반에서 사는 조승기로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꿈만 같수다. 지금껏 우리가 해놓은 일이 도대체 뭐웨까. 그저 우리 장군님의 고향시에 태를 묻은 행운이라 할지… 이렇게 궁궐같은 새집에서 아무 걱정없이 살게 되니 옛일이 자꾸만 떠올라 내 자식들에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은덕에 꼭 보답해야 한다고 당부하군 하웨다.》

정말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이 꽃펴나는 이곳에서 돌아본 곳, 만나본 사람들은 달라도 목소리는 하나였으니 그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은덕에 감격을 금치 못해하는 목소리였다.

몸소 비내리는 진창길과 삼복의 폭염, 한겨울의 눈보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인민의 행복넘친 락원을 여기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 펼쳐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주체110(2021)년 11월 삼지연시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들이 반기는 보람있는 일을 해냈다는 뿌듯한 마음을 금할데 없다고, 인민들의 목소리가 곧 삼지연시건설사업에 대한 총평으로 된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거듭 기쁨을 표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모습이 눈에 안겨왔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이 꽃핀 삼지연시의 눈부신 현실에서 더욱 휘황찬란할 조국의 미래를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김승기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권재정

형태기억합금연구에 한생을 바쳐

올해 80살인 권재정은 생일상을 준비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생일은 무슨 생일이냐. 난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조국의 품에 안긴 주체48(1959)년 12월 24일을 내 생일로 기념할 생각이다. 이날이 없었다면 나의 오늘은 상상도 할수 없다.》

주체110(2021)년 9월 8일은 국가과학원 나노공학분원 연구사 인민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 권재정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날이다.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에 로력혁신자, 공로자로 참가하였던 그는 바로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시고 그들을 따뜻이 축하해주시였다.

권재정연구사는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정원에서 진행된 성대한 연회에도 참가하여 꿈같은 행복의 시간을 보내였다.

그날 백발의 로과학자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고 궂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한몸을 내대며 조국의 큰짐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헌신분투한 애국자들이라고 마디마디 정을 담아 불러주시는 그이의 모습을 뵈오며 감격을 금치 못해하였다.

연회가 끝났지만 그의 귀전에는 애국자라는 말이 계속 공명되여 울리였다.

그럴수록 지나온 나날이 영화화면처럼 생생히 재현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를 졸업하고 국가과학원 유색금속연구소 연구사로 배치받은 그는 형태기억합금연구에 달라붙었다.

당시 이 분야는 미개척분야였다. 하지만 보건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는 이 합금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그는 첨단재료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끝이 없을상싶은 실험과 문헌자료를 연구하면서 합금의 상변태온도와 시효성성질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실패가 뒤따랐고 몇해째 성과를 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끝끝내 티탄-니켈계형태기억합금을 개발하였다.

또한 생체용티탄-니켈형태기억합금의 상변태온도를 표준으로 보장하고 합금의 시효성성질을 밝힌것은 물론 가공특성도 해결하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10여년간이나 심장혈관확장술에 쓰이는 형태기억합금세선을 뽑는 가공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낮과 밤을 이어갔다.

하여 사람의 체온에서 형태기억효과를 내는 형태기억합금세선을 내놓아 수많은 심장관상동맥환자와 전위선비대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새 희망을 안겨줄수 있게 하였다.

그의 발명품은 김만유병원, 평양의학대학병원을 비롯한 중앙급병원들에서 철저한 림상검토를 거쳐 보건실천에서 효과있게 리용되고있다.

니티놀계형태기억합금세선을 만드는 방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증서를 받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연구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에 귀국하여 남포에서 살던 그를 평양에 소환하도록 해주시였다.

나노재료와 기계재료에 관한 수많은 참고서들도 집필한 그에게는 10여건의 발명증서와 많은 과학기술성과등록증, 새기술도입증이 있다.

그는 불변색티탄분말제조에 관한 연구도 심화시켜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축전에서 국제발명권과 메달도 수여받았다.

권재정의 가족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흔번째 생일을 맞는 그에게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언제인가 다른 나라에 대표단으로 나갔던 그는 일본에서 살고있는 누이들과 상봉한적이 있다.

누이들은 조국에 가서 인민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가 되였다고 그의 성공을 축하해주었다.

그는 오늘도 조국을 위해 스스로 연구과제를 정하고 탐구의 먼길을 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속담

체험과 관련한 속담

-제 밥 덜어줄 샌님은 물 건느면서부터 안다

남을 위해서 발벗고나설 우정과 인정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함께 어려운 처지를 당해서야 비로소 알게 됨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제앞에 안떨어지는 불은 뜨거운줄 모른다

흔히 제가 직접 당한 일이 아니면 아무리 어렵고 곤난한 일도 그 괴로움을 잘 모르기가 일쑤임을 비겨이르는 말.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

비에 젖은 흙이 마르면서 굳어지듯이 어떤 풍파를 겪은 뒤에 일이 더 든든하여지는 경우에 비겨이르는 말.

* * *

중국 길림성 화룡시 배정숙 앞

상봉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억석형님과 금녀동생 등 가족들모두가 잘 계시는지.

몇년전 아버지가 눈을 감기 전에 누이가 보고싶다며 고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언제부터 고모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벼르고있다가 이번에 잡지 《금수강산》 기자들을 만나게 되어 오늘에야 소식을 전합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과 형제들도 모두 잘 있습니다.

어머니는 정정하여 아직도 집안의 일을 맡아하다싶이 합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한 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업과학원에서 연구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지금은 한개 단위를 책임진 일군이 되어 둘째매부와 함께 같은 농업과학원에서 사업하고있습니다. 성혁동생도 농업부문에서 자기 맡은 일을 잘해나가고있으며 맏딸도 평양농업대학 박사원생으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누이동생들인 향란이와 향옥이도 이제는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서 자식들과 손자들의 뒤바라지를 한답니다.

고모, 기뻐하십시오. 저의 가정은 2년전에 평양의 보통강반에 새로 일떠선 경루동에 입사하였습니다.

출판보도물을 통해 보았겠지만 이 경루동지구가 어떤 곳인지 고모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리용하시던 저택이 있던 곳이랍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 구역에 새 주택구를 건설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용하시던 저택이 없어지지만 그대신 우리 인민이 쓰고살 훌륭한 살림집들이 생겨난다고 하시며 다락식주택구를 일떠세우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구역명칭도 평양에서 제일 멋있는 곳이라는것이 반영되면서도 아름다운 구슬다락이라는 뜻이 상징적으로 의미있게 안겨오도록 《경루동》이라고 몸소 지어주시고 호화주택구에 평양시안의 로력혁신자, 공로자,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들이 입사하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별로 한 일도 없는 나도 어머니와 함께 우리 가족이 경루동 5칸짜리 호화주택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펴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접 체감하고보니 우리 온 가족은 나라를 위해 한가지라도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형제들과 친척들은 우리 가족이 입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모여와 축하해주며 제일처럼 기뻐하였습니다. 그때 고모네까지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면서 이전에 고모가 평양에 왔을 때의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고모, 이번에는 혼자 오지 말고 온 가족을 데리고 평양에 다시 오십시오.

수십년전 평양에 왔을 때 친척들을 만나보느라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하였는데 우리 집에서 모든 형제, 친척들이 모여 즐거운 회포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봉의 그날까지 고모네 온 가족들이 몸성히 건강하기를 바라며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평양시 중구역 경루동 제15인민반 조카 배성남 올림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

대성산 광법사에서

얼마전 조선민족유산국제려행사 관광객들과 함께 조국의 명승고적들을 찾아가는 우리의 기행길은 대성산 광법사에로 이어졌다.

뻐스에 오르는 손님들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관광안내원은 지난 룡악산관광때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던 백일옥이였다.

안내원은 손님들에게 깍듯이 자기 소개를 하고는 관광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관광객들 대부분이 관심을 가지는 장소는 두말할것없이 대성산 광법사였다.

한 청년은 《대성산에 수차 가보았지만 여적 광법사에는 한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오늘에야 이렇게 우리 동무들과 함께 품을 놓고 길을 떠났

습니다. 빨리 가보고싶습니다.》 하며 길을 재촉하였다.

뻐스는 현대적인 새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선 화성거리와 림흥거리를 지나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 대성산샘물공장앞을 지나 대성산의 국사봉 서북쪽기슭에 위치한 광법사에 이르렀다.

주지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는 광법사는 동방강성대국으로 그 이름도 높았던 고구려시기인 392년에 건립된 불교사원으로서 지금까지 보존되여오면서 선조들의 우수한 건축술과 유구한 문화전통을 보여주는 귀중한 력사유적의 하나이라고 해설해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두개의 큰 돌이 박혀진 곳에서 우리의 걸음을 멈춰세웠다.

당간지주라고 부르는 이 돌은 지난 시기 불교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기발을 내리드리우던 지지대로서 조국의 건축력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되고있다.

주지의 설명을 들으며 해탈문으로 들어서는데 이때 누군가가 문우에 쓴 글을 보며 물었다.

《해탈문이란 무슨 뜻입니까?》

《광법사에는 두개의 문이 있는데 이 문들을 통과해야만 기본법당에 가닿을수 있습니다. 그중

첫 문이 바로 이 해탈문인데 여기에는 이 문을 지나면 인간세상의 온갖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날수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라고 주지는 친절하게 설명하였다.

해탈문을 통과한 우리는 두번째 문인 천왕문옆에 있는 사적비에 다가섰다. 사적비는 1727년에 광법사를 보수개건하면서 건립한 비였다.

그런데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1950. 6. 25-1953. 7. 27.)시기인 주체41(1952)년 7월 폭격으로 다른 건물들은 다 파괴되였지만 이것만이 그대로 남아서 광법사의 력사를 전해주고 있었다.

《비석에 쪼아박은 매 글자들이 이렇게 작은데 얼마나 섬세한지 마치 종이우에 쓴것처럼 필체가 선명하면서도 매우 세련되여있군요.》

한 녀인의 이 말에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비석을 쓰다듬어보며 감탄하더니 주지에게 뭐라고 썼는가 어서 읽어달라고 하였다.

주지는 옛글을 줄줄 내려읽기 시작하였다.

《…동방에는 왕검선인의 나라가 있고 나라의 동쪽에는 대성구룡산이 있다.》

잠시 숨을 돌린 주지는 이 비가 바로 평양이 조선민족의 첫 국가를 세운 단군이 살던 곳이며 그가 도읍을 정하였다는것을 증명해주는 귀중한 력사자료라는데 대해 해설해주었다.

비문에 있는 대성산의 99개 못에 대한 이야기와 록족부인전설(발이 사슴발처럼 생겼다고 하여 록족부인으로 불리운 한 녀인의 애국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대 시인으로 이름이 높았던 김시습이 광법사에 와서 많은 시를 남겼다는 내용도 함께 이야기해주었다.

이때 한 청년이 《여기에 적힌 이야기들은 력사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도 귀에 설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사료가 바로 이 사적비에서 기원되였다는것을 알고있는 사람은 드물겁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윽고 관광객들은 하늘의 왕들(동서남북 각각 한명의 왕이 있다는 뜻)이 있다는 천왕문을 지나 대웅전앞마당에 섰다.

그곳에는 불교의 상징인 련꽃모양으로 기단을 형성하고 정교하게 쌓아올린 8각5층석탑(높이 5. 6m)이 있었다. 그 량옆에 자리잡은 동승방, 서승방에서는 이 절의 중들이 생활하고있었다.

광법사의 중심건물이며 기본법당인 대웅전은 말그대로 고색창연하였다.

대웅전은 한채의 법당에 큰 불상을 3상 앉힌것이 특징적이였는데 이름에는 큰 부처가 있는 집으로서 웅장하고 화려한 집이라는 뜻이 담겨져있다.

한 로인은 대웅전의 안팎을 구체적으로 보더니 《밖에서는 2층으로 보이지만 실지는 단층으로 되여있구만. 저 단청무늬와 색갈을 좀 보오. 얼마나 오색이 령롱하고 화려한가. 정말 볼수록 아름답구만.》 하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여기에서 일행은 광법사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야수적폭격으로 여지없이 파괴되였지만 나라의 민족유산보호정책에 의해 옛 모습그대로 복원된데 대하여 알게 되였다.

오늘도 귀중한 국보유적으로 보존되고있는 광법사!

자기 민족의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으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참된 애국자가 될수 있으랴.

이러한 마음들을 가다듬으며 광법사를 나선 우리는 관광객들과 함께 뻐스에 올라 다음일정인 바줄당기기와 윷놀이, 줄넘기 등 체육유희오락경기가 진행될 태권도전당으로 출발하였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삼댐모래찜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민족의 향기》란의 페지를 기다리시는 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호에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세계문화유산이 많은 고장으로 유명한 개성시로 이끌어가보려고 합니다.

918년 왕건에 의하여 성립된 고려(918년-1392년)의 수도였던 개성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조선의 명물인 인삼이 나는 곳으로 온 세상에 알려져있습니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조선의 인삼을 입가에 올릴 때에는 의례히 고려시기 개성지방의 이름까지 각근히 붙여 《개성고려인삼》이라고 부르고있는것입니다.

허나 그토록 이름높은 개성지방에 인삼말고도 꼽히는 자랑도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삼댐모래찜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댐모래찜이 어찌하여 인삼에 못지않은 가치를 가지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성시 동대문(고려시기의 숭인문)밖 개울의 흐름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길게 펼쳐진 모래불을 삼대미라고 부른답니다. 또한 특별히 모래가 많은 내라고 하여 그 이름을 사천(沙川 모래 사, 내 천)이라고도 합니다.

사천의 시원은 세개 즉 령통골, 소릉골, 다른 총지동(총지사골)으로서 세골의 물이 합수하여 사천을 이루고있으며 그것이 동남쪽으로 흘러 림진강에 합쳐집니다.

삼댐모래찜과 관련한 흥미있는 옛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황해도 배천고을에 량반부부가 살았는데 그들은 마흔이 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날 안해 안씨는 남편과 함께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량주의 맥을 짚어보고난 의원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외가 다 양기가 몹시 허하네. 양기를 돋구는데는 인삼보다 나은것이 없으니 인삼을 푹 달여 복용하면 인차 기별이 있을거네.》

량주는 돌아오는 길에 개성에 들려 인삼 한근을 사서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큼직한 곱돌약탕관에 넣고 달여 여러날동안 부부가 꼭같이 나누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두달나마 지나갔는데도 전혀 감도가 없었습니다.

안씨가 다시 의원을 찾아갔더니 그가 하는 말이 《사람의 몸에서 위장은 화로와 같거니 화로의 불이 성해야 피줄을 통해 온몸에 기가 골고루 퍼지게 할수 있네. 열이 부족하면 오장륙부가 다 제대로 구실을 못하지. 그런즉 어찌 아이낳이를 할수 있겠나.》라고 하더니 삼다음은 모래찜이니 사천에 가서 모래찜을 하면 남았던 랭기가 깡그리 빠질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아니나다를가 모래찜을 한 후 꼭 열달만에 안씨는 떡돌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후로 몇해사이에 아들 둘을 줄줄이 더 낳았습니다.

안씨는 너무도 기쁜김에 만나는 아낙네들마다 붙잡고 《이보라구, 삼다음은 모래찜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삼다음이란 말이 한입건너 두입건너 《삼대미》, 《삼댐》이라는 말로 바뀌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삼댐모래에 과연 무슨 비밀스러운 약효가 숨겨져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삼댐모래에는 마그네시움, 철, 동, 규소, 망간, 칼시움을 비롯한 여러가지 좋은 성분들이 적지 않게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삼댐모래찜은 해빛에 의하여 덥혀진 모래의 열작용과 땅속에서 방출되는 방사성기체인 라돈, 그 붕괴산물의 호상작용에 의한 치료효과를 리용하여 여러가지 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의학자들은 삼댐모래찜의 치료효과가 라돈기체에 의한것이라고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라돈은 사람의 피부와 접촉되거나 흡입을 통하여 몸에 쉽게 흡수되여 신경계통, 심장혈관계통, 물질대사 및 내분비계통, 조혈계통, 소화기계통 등에 유리한 작용을 하며 피부의 적응력을 높여 염증을 빨리 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삼복철에는 뜨거운 열작용에 의해 더 많은 라돈기체가 방출되여 치료효과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함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고 다 돌려주는 조선로동당의 보건시책아래 개성의 삼댐모래찜터에도 훌륭한 치료기지가 자리잡고있습니다.

근 40년전에 벌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개성시에서 삼댐모래찜터를 료양지답게 꾸리고 인민들이 병치료에 리용할데 대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하기에 삼복철이 되면 개성시와 그 주변지역뿐 아니라 전국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 마음껏 병치료를 하고있습니다.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삼댐모래찜의 치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환자가 반듯이 누울수 있는 크기만하게 모래구뎅이를 파고 30분간 해볕에 뜨겁게 달구어지도록 합니다.

환자는 누운 자세에서 머리와 목부위를 드러내놓고 가슴웃면에서 5~7㎝두께로 모래를 덮는데 15~20분정도 하루 2~3회 할수 있습니다.

모래찜질치료를 할 때 직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양산을 쓰거나 안경을 끼는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독자여러분도 무더운 삼복철 조국에 오시면 개성지방을 찾는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삼댐모래찜을 해보십시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김국철

상식

여름철건강상식

여름철은 공기습도가 높기때문에 땀을 통해 소금기와 영양분이 몸밖으로 빠지게 되므로 입맛이 없고 피로감과 무력감이 자주 나타난다.

사람이 무더운 여름철에 흘리는 땀의 량은 다른 계절에 비해볼 때 두배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날씨가 덥고 땀을 많이 흘리면 생리적으로 찬물을 마시게 되는데 단번에 많이 마시면 위장계통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다. 찬물로 입가심을 하거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하며 오이랭국이나 각종 화채 등을 만들어 식생활에 리용하는것이 좋다.

여름철에 몸안의 장기들가운데서 제일 큰 부담을 받는것은 심장이다. 맥박이 빨라지고 가슴이 활랑거리며 숨이 차고 답답하게 되는 등 일련의 심장부담증상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계절에 심장을 튼튼히 하는데 이바지하는 약초들과 음식들이 몸에 좋다.

실례로 찔광이나 오미자로 차를 만들어 리용하면 신경계통, 심장혈관계통 등의 기능을 높여주고 피로도 빨리 풀수 있다.

* * *

섬세한 필치의 소유자 신한평

신한평은 18세기 우리 나라 사실주의미술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신윤복의 아버지이다.

그는 도화서 화원으로서 산수와 풀, 곤충을 잘 그렸지만 화상화에 남달리 뛰여난 재간을 가지고있었다.

당시 그의 그림재주가 얼마나 능하였는가 하는것은 《일재(신한평의 호)가 첨사의 관직을 지닌것은 정조왕의 화상을 잘 그린 공으로 차례진것이였다.》라는 옛 기록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그의 작품으로서는 《꽃과 새》, 《봄비 내리다》가 전해지고있다.

이것은 신한평이 62살 나던 해에 생일을 맞으며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

어느날 신한평은 아들 신윤복과 함께 아름다운 꽃들이 앞을 다투어 피여나는 정원을 거닐었다.

《올해엔 유별나게 매화가 곱게도 피였구나.》

《예, 아버님.》

뒤따르던 신윤복은 빨갛게 물들면서 어여쁘게 피여난 매화꽃가지를 하나 꺾으려 하였다.

《아서라, 그건 왜 꺾느냐?》

신한평은 아들 윤복의 손을 멈춰세웠다.

《아버님의 서재에 놓아드리려구요.》

웅심깊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신한평은 효성스러운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오래도록 쓰다듬었다.

《그냥 두어라. 내 방에 갔다 두어야 얼마 가지를 못할게다. 자연의 이 순수함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지 말고 어서 내 방에서 화첩이나 가져오거라.》

아버지의 말에 신윤복은 얼른 뛰여가 아버지의 화첩과 색감들을 안고 다시 달려왔다.

신한평은 온 페부로 꽃향기를 듬뿍 들이마시고 서서히 붓을 들었다.

《아버님, 제가 그리겠습니다.》

신윤복이 아버지의 손에서 붓대를 넘겨받으려 하자 신한평은 아들의 손을 가볍게 밀막았다.

《아서라, 내 아직 이 손에서 붓을 놓으려면 멀었다. 걸은 늙어도 속은 살았다는 말이 있잖느냐? 허허.》

신한평은 신윤복이 펼쳐드는 화첩과 매화꽃나무를 번갈아 보고나서 드디여 붓쥔 손을 놀리기 시작하였다.

그 손놀림은 마치도 늙은이의 손놀림이 아니라 거문고줄을 능란하게 튕기는 아름다운 녀인의 손놀림처럼 유연하고 활줄을 당기는 젊은이처럼 힘이 있었다.

화면의 왼쪽중심으로부터 보기 좋게 뻗어올라간 몇줄기의 꽃나무가지우에 활짝 핀 꽃송이들과 나무잎들이 맑고 깨끗한 색채와 농담의 섬세한 변화로 생동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필치가 얼마나 정교하고 세련되였는지 도무지 늙은이가 그린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꽃과 새》 124×54.2㎝
종이·채색

신윤복은 약동하는 봄을 온 페부로 느끼는듯싶은 그 그림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난 아직 아버님의 그 필치를 따르기에는 멀었는가봅니다.》

신한평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무엇이든지 마음먹기에 달린 법이다.》

신한평은 얼굴에 근엄한 빛을 띄우며 신윤복에게 붓대를 넘겨주었다.

신윤복은 아버지가 넘겨주는 붓대를 무겁게 받아쥐였다.

그리고는 숙련된 솜씨로 아버지의 필치를 그대로 살려 화폭의 왼쪽공간에 아름답게 우짖는 한쌍의 꾀꼴새를 그려넣었다.

이것은 여백의 효과를 능숙하게 처리한 화가의 세련된 기교의 표현이다.

그림 《꽃과 새》는 비록 간단한 그림이지만 온갖 꽃 피여나고 아름다운 새들이 지저귀며 찾아드는 봄의 정서적분위기를 아름답고 화려하게 묘사하였다.

이 그림은 아버지와 아들의 천성적이며 뛰여난 화법과 필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인것이다.

하기에 아버지의 뒤를 이은 신윤복은 당대 사실주의화단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름을 남겼다.

김홍도의 제자이기도 한 신윤복은 생활에 대한 세밀한 관찰력에 기초하여 부드럽고 섬세하면서도 세련된 필치, 밝고 소박한 색채를 리용하여 계층별인물들의 전형적인 모습과 성격, 그 내면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하였으며 묘사대상의 형태적특징을 선명하게 강조하여 화폭마다에 풍부한 정서와 감정이 넘치는 화법을 창조함으로써 도화서의 다른 화가들속에서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화법의 창조자로 되였던것이다.

신윤복은 우리 나라 화단에 자기의 그림들을 많이 남겼지만 아쉽게도 그의 아버지 신한평은 화상화가로서 뛰여난 자기의 재간을 수록한 인물그림들을 후세에 남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창작에 대한 옛 기록을 통하여 신한평이 우리 나라의 재능있는 화가의 한 사람이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명석

장기수풀이 (19)

장기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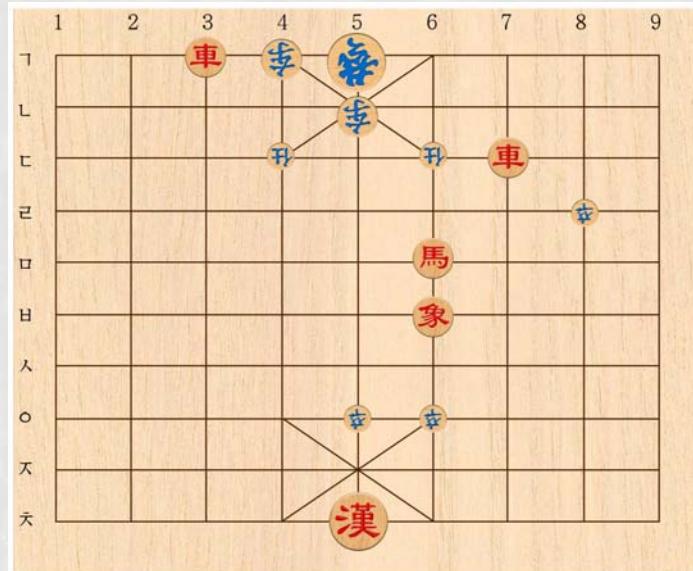
《마불변행》

말이 변두리(1렬 혹은 9렬)로 가지 말라는 뜻이다. 말이 변두리말이 되면 그때는 벌써 자기의 사명을 잃은것이나 같기때문에 상대방의 차 또는 그밖의 쫄들이 말을 쫓을 때에는 될수록 변두리로 몰아가는것이고 변두리말이 중앙으로 나오지 못하게 멱을 막아 공격과 방어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것이 일반원칙으로 되고있다.

이 격언은 말이 상보다 다리가 짧기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될수록 변두리로 나가지 말것을 충고하는 말이다.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합니다.

장기수풀이 (18)에 대한 답

ㄴ7차ㄱ7, ㄱ6궁ㄴ6, ㅅ5상ㄹ3, ㅂ3상ㄷ5, ㄷ7차ㄷ5, ㄷ4포ㄷ7, ㄷ5차ㄷ7, ㅊ3포ㄹ3, ㄷ7차ㄹ7, ㄴ6궁ㄷ6, ㄹ7차ㄹ6, ㄷ6궁ㄷ5, ㄹ6차ㄹ5, ㄷ5궁ㄷ6, ㄱ7차ㄷ7, ㄹ9말ㄷ7, ㄷ8말ㄱ7, ㄷ6궁ㄴ6, ㄹ5차ㄹ6, ㄴ5사ㄷ6, ㄹ6차ㄷ6, 《장훈》

일본《자위대》의 현주소

최근 일본의 움직임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해상《자위대》의 이전 해장이 특급전범자들의 위패가 보관되여있는 야스구니진쟈의 최고우두머리로 등용되였다. 정객들이 때를 가리지 않고 집단적으로 진쟈참배를 하는것이 례사로운 정치흐름으로 된 이 나라에서 전범자들의 망령들을 《자위대》의 이전 실세가 관리한다고 볼때 그 의미가 심상치 않다.

륙상《자위대》의 주요우두머리를 포함한 수십명이 진쟈를 집단적으로 참배하였는가 하면 해상《자위대》의 연습함대사령부 사령관이 부하들을 데리고 군복차림으로 진쟈를 찾아가 공물을 바치며 특급전범자들을 위로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아시아나라들과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정객들의 머리를 재침열기로 달구어주는 진쟈의 망령들이 떠도는 곳에 《자위대》의 이전 고위장관이 등용되였다는것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옛꿈실현의 직접적담당자들을 위한 《정신교육사부》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는것을 각인시킨것으로 된다.

즉 지난 세기 침략과 략탈의 길에 나섰던 《황군》의 망령들이 군국주의독소에 쩌든 《자위대》의 실체를 빌어 뻐젓이 《환생》하고있는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그것은 력대 최대규모인 7조 9 496억￥으로 결정한 2024년도 방위예산비에서 거의 1/10에 해당한 7 340억￥을 장거리미싸일구입 및 개발에 할당하려고 하고있는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이것만 보아도 일본이 선제공격능력보유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일본이 걸핏하면 《주변위협설》을 내돌리고있는것은 이를 빗대고 어떻게 하나 장거리미싸일배비를 가속화함으로써 주변나라들의 종심을 타격할수 있는 공격능력을 확보하려는 술책외에 다른것이 없다.

특히 지난해 일본은 미국, 괴뢰한국과 함께 공화국을 겨냥한 《3자군사훈련 년례화》에 대해 모의하고 《미싸일경보정보 실시간공유체제》를 정식가동시키는 등 조선반도를 둘러싼 안전환경에 위태로운짓들만 골라하고있다.

여기에 해마다 첨단공격형무장장비개발 및 구입, 국내외에서의 각종 훈련을 통한 전쟁능력숙달로 오늘날의 《자위대》무력은 《전수방위》의 범위를 훨씬 초월한 침략무력으로 철저히 변신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해상《자위대》의 이전 해장이 특급전범자들의 위패가 보관되여있는 야스구니진쟈의 최고우두머리로 등용된것은 미국, 괴뢰한국사이의 3각군사공조를 통해 조선반도에 대한 무력전개와 침략적해외군사활동에 《적법성》을 부여하고 지난 세기의 피비린 침략력사를 다시 써나가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것이나 다름이 없다.

일본이 아시아와 세계에 침략전쟁의 검은구름을 다시 몰아오고있다.

그 배후에는 지난 세기 우리 나라와 아시아인민들에게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전범자들의 망령들이 서있는것이다. 그 후예들이 지난 세기의 피비린 침략력사를 현시대에 재현해보려고 세계의 면전에서 몸부림을 치고있다.

오죽하면 일본의 언론들도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면 뻐젓이 《환생》한 현대판《황군》의 발걸음소리가 들려오는듯싶다고 통탄했겠는가.

복장은 달라졌어도 패망한 구일본군의 전철을 답습하고있는것이 일본《자위대》의 현주소이다.

본사기자

력사유적

제월루

제월루는 함경남도 함흥시 동흥산기슭에 위치하고있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건립된 루정이다.

루정은 당시 함흥향교에 부속되여있었다.

제월루는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이후 처음으로 건설되였다. 그후 1832년에 처음위치보다 조금 내려다 지금의 자리에 다시 세웠다.

제월루는 정면 3간, 측면 3간의 겹처마합각집이다.

루정은 땅우에서 2.5m되는 곳에 마루를 놓고 건설하였다. 화강석기단우에 둥글게 다듬은 주추돌을 놓고 그우에 흘림기둥을 마루의 우, 아래로 이어서 세웠다. 그리고 2층기둥밖으로는 란간을 둘렀다.

천정은 중보웃부분에 아름다운 련꽃무늬를 형상하였고 나머지부분은 로출되도록 함으로써 화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하게 하였다. 천정을 이와 같이 만든것은 2층루정건물로서는 보기 드문것이다.

제월루는 조선봉건왕조말기 루정건축의 구조와 특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이다.

*　*　*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뒤표지: 신평금강/라평렬

ㄱ-24088018276